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5월 4일 (토) 제 1728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고마워요, 날 지켜준 그대!”

#### ‘2019 가정의 달 맞아 가족의미 돌아보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제방안 소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본다. 가족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소통, 화합, 안전, 가치 창출, 개념 확립을 통해서 ‘바른 성장’을 하는 최소 단위의 사회 구성원이다. 따라서 가정이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최초의 장이기도 하다. 모두가 ‘벽’이라고 말할 때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벽을 뚫고 나아가거나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개발하고 공유해 발전시키는 근원이다. 그래서 가정의 건강한 문화가 사회와 연계되고 이어져 국가가 되고 역사가 된다.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도, 어떻게 보내

고 가정의 의미를 지켜야 하는지 난감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민 가정에서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나는 자녀들과 그리고 대부분 외롭게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가족의 하나됨을 기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물론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 가지 행사들과 가정의 달 기도 매뉴얼을 제공해주지만, 실제 가정에서 적용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먼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실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해본다.

우리는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간다. 삶이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고, 그곳에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걸 우리는 꼭 지나고 나서야 안다. 어느새 등이 굽은 부모님과 훌쩍 큰 아이들...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한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랬던 어떤 시인은 가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배웅해 주는 사람은/바로 우리의 가족이다.”(권미경 ‘아랫목’ 중).

우리는 집에서 나와서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집이란 보호와 안식의 피난처이다. 세상 세파에서 보호하고 도망가 쉴 수 있는 보호처이고 안식처이다. 세상이 변하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



지만 가족의 소중함은 달라진 것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한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든, 세상에 살아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집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조차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나 가르침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2011년 한국 중건교회 50교회들을 선정해 가정의 달 설교 주제를 분석한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는 중건교회 50교회를 선택해 3년간의 가정의 달 설교 주제를 분석했다.

(3면으로 계속)

### 흔들렸지만, 굳건하게 서 있다!

#### BBC/World/CT, 부활절 아침 테러 공격을 당한 스리랑카 현지 상황 보도 및 수용 자제 제시

스리랑카에서 21일, 부활절 아침 연쇄 폭발이 발생, 262명이 숨지고 452명이 다쳤다. 교회 3곳과 호텔 4곳, 가정집 1곳이 공격을 받았다. 교회 중 2곳은 가톨릭, 1곳은 복음주의 교회였다. 스리랑카 경찰은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 테러는 대부분 자살폭탄 방식으로 이뤄졌다. 희생자 중에는 최소 8개국 외국인들이 포함됐다.

스리랑카 경찰은 용의자들이 이동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안전가옥 등을 찾아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공격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는 민족과 종교 갈등이 심한 나라로, 이번 테러는 종교적 이유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참사에 대해 각국 정상을 비롯해 세계인

들이 규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부활절을 함께 축하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악의적 공격의 타깃이 됐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테러 공격을 규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테러를 '잔인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비극적으로 죽은 모든 이와 이 끔찍한 사건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필이면 왜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이번 테러가 자행됐는지, 그리고 현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참담한 비극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지를 알아본다.

각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는 민족적, 종교적 갈등과 분쟁에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쟁은 나름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데다, 원인도 뿌리 깊고 갈등을 보는 시각도 상대적이어서 분쟁의 원인과 현상만을 놓고 어디가 옳다, 그르다 단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테러라는 끔찍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건 어느 나라, 어느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보복을 위해 테러를 택한다면 피의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테러를 통해 갈등과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없었



테러 공격을 받은 성 세바스천교회 현장

다. 테러는 애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내고 갈등을 증폭시킨다. 테러범 중에는 테러를 자행

한 이유를 대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자들도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중국가정교회의 상황 노봉린 목사 14면



인터뷰 이국진 목사 16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K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www.biblestore.com

## 제4회 PGM 선교사 집중훈련

일정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4시 - 6월 23일(주일) 오후 1시 (6박 7일)  
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휴,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400 / 부부 \$600 (항공료 자부담)  
장소 6월 17일-20일 NJ Christian Academy  
6월 21일-23일 필라 안디옥교회  
훈련내용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 디아스포라, H&N, 전문인,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 땅광선교), 전문인선교사례, 타문화전도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선교집회 등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전문인선교헌신자들을 초대합니다!

### 선교집회



6월 17일(월) 임재영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전, 이스라엘 선교사



6월 18일(화) 고훈 목사 뉴욕 하운교회 PGM 정책이사장



6월 19일(수) 양춘언 목사 Hispanic Ministry PGM 선교사



6월 20일(목) 김은범 목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PGM 정책이사장

### 강사진



안사무엘 목사 PGM 실명총무



Jay Kim 전도사 PGM 영어권 훈련부장



박상수 선교사 교육전문/강사사역 PGM 선교사



김현영 선교사 농축산전문/순회사역 PGM 선교사



정준영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사역 PGM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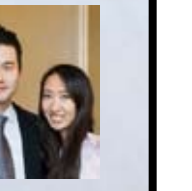
### 현장실습



박현 선교사 KCBMC 사무총장 PGM 선교사



이태후 선교사 필라도시민인사역 PGM 선교사



고대은/성은지 선교사 다민족교회개척사역 PGM 선교사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www.pgmusa.org | 610.397.0484



● 발행인 칼럼 ●

###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최근에 몇날 방문했던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삼분의 일은 죽어 보였다. 지역 주변에 대학들이 몇몇 있었고 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로 그 젊은이들이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넘어서까지 그들이 교회에 머물다 졸업과 함께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역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또 새롭게 찾아 온다고 한다. 그 교회 장년들과 청년들이 따로 또는 함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찬양대"도 있었고 "경배와 찬양"팀도 있었다. 자신들의 색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절한 조화가 그 가운데 흘렀다. 장년들에게는 그 젊은이들이 소중한 선교지였고, 젊은이들에게는 장년들이 인생의 가장 힘들 때에 신앙과 위로의 버팀목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의 졸업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힘들다는 이야기와 떠난지 5년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머무는 동안 그 교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형제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다시 찾아 온 진풍경도 보았고 또 다른 형제가 타 지역에서 일년 동안 직장 생활해서 벌거 된 소득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 그 교회 음향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쉽지 않은 모습도 보았다. 마침 그 교회가 세워진 기념 감사예배도 있었는데 지역의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진정어린 축사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되었다.

처음 불렀던 것은 아니지만 그곳 젊은이들 장년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그날따라 매우 의미심장했다. 그 가사는 이렇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다시 오실 그날까지/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우리교회는 이 땅의 희망/교회를 교회되게 예뻐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교회는 생명이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뻐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저며 왔다. 그 가운데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란 구절에는 더 큰 울림이 있었다.

그렇다. 교회라는 이미지가 요즘처럼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한 몇몇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진면목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살펴보면 각 교회는 그 교회만이 독특한 이야기가 있고 주님 안에서 "농익은 밋과 맛"이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쏟아왔는가.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되도록 얼마나 끝없는 눈물로 기도해왔는가.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임을 알아 그 희망의 빛을 어둔 세상에 비취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절절히 태워왔는가.

교회 외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교회와 역사의 유일한 방향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교회 외에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절망이 만연되어 있다. 매일 아침 어두움이 물러간 그 햇살 가운데 희망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자가 세상에 그 누구인가. 절망은 절망을 보듬을 수 없다. 희망이 절망을 치유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처럼 절망할 수 없다. 교회는 절망의 이 땅에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의 장년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존중해주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힘들 때 은혜 받은 교회를 잊지 않고, 지역 교회의 교역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진정어린 동역자들이 되어갈 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 불리는데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 미 성인 9.1% 특정 공포증 소유

뉴스위크, 특이하고 흔하지 않은 기이한 포비아 10가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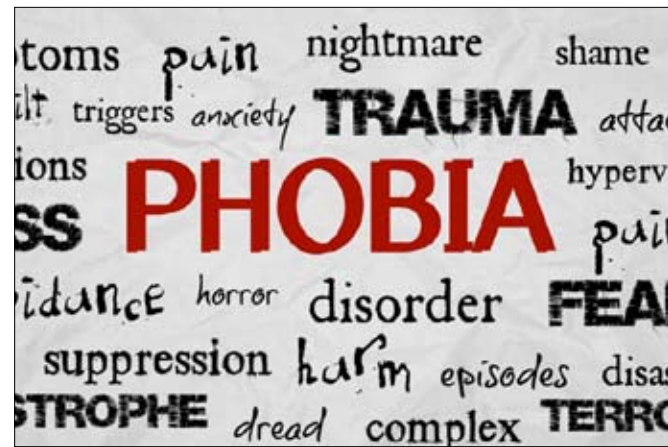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에 따르면 공포증이란 '거의 또는 아무런 실질적 위험이 없는 무언을 향한 강렬하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 미국 성인 중 약 9.1%가 특정 공포증을 갖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공포증에 더 취약하다. 미국 성인 중 여성의 12.2%, 남성은 5.8%가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와 45-59세의 10.3%, 30-44세의 9.7%가 공포증을 갖고 있다. 공포증이 가장 적은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그 비율은 5.6%로 조사됐다. 성인의 48.1%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가 심하지 않다고

했고 30%는 중간 정도라고 말했다.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였다.

공포증 중에서도 뱀공포증(ophidiophobia), 거미공포증(arachnophobia), 고소공포증(acrophobia,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비행공포증(aerophobia, 비행기 타기를 무서워한다) 같은 것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하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공포증도 있다. 흔치 않은 기이한 공포증 10가지를 소개한다(10 Phobias Which Are Unusual And Bizarre).

1. 목욕 공포증 (ablutophobia)

이 세상에는 목욕이나 일 반적인 씻기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샤워하려고 할 때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앞으로 뱀새가 나거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볼 때는 점을 감안해 여는 정도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이다. 로마신화에서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플루토스(pluto)와 '두려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phobos가 합쳐진 단어다.

7. 노모포비아 (nomophobia) 가장 최근에 생긴 공포증이다. 휴대전화(mobile phone)가 자신의 호주머니나 손에 없거나 특정한 사정

### 공포증: 실질적 위험 없는 무언을 향한 강렬하고 비이성적인 두려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18-29세, 45-59세 최다...60세 이상 최저

'씻다'를 뜻하는 라틴어 ablutere에 '두려움'이라는 뜻의 phobos를 붙여 만든 합성어다.

2. 의견 공포증 (allodoxaphobia)

'다르다'는 뜻의 그리스어 allo와 '의견'이라는 뜻의 dox, '두려움'이라는 뜻의 phobos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다. 다른 사람의 의견 들기를 두려워하는 증상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공식화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과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땅콩버터 공포증 (arachibutrophobia)

공포증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싫어하는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땅콩버터를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입

천장에 땅콩버터가 붙어 있는 생각에 공황장애가 온다면 이 공포증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땅콩버터의 질감에 거부감을 느끼는 한편 땅콩버터에 의한 실질 위험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자유 공포증 (eleutherophobia)

우리 대다수에겐 자유가 행복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겐 자유에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공식화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과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트라우마가 속박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 '자유'를 뜻하는 그리스어 eleutheria와 '두려움'이라는 뜻의 phobos가 합쳐진 용어다.

5. 단어 공포증 (logophobia)

이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화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손으로 적었거나 인쇄된 단어를 읽을 때 무척 힘들어 한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 글 읽기를 배우는 데 대한 저항으로 동반되는 증상이다. 그리스어 logos는 '말, 단어, 또는 이성'을 뜻한다.

6. 재물 공포증 (plutophobia)

돈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있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나 부자인 사람을 끔찍이 무서워한다. 부자가 되는 데 따르는 의무나 부담, 가진 부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싫어

로 인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극도로 초조해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일컫는 용어로 'no mobile-phone phobia'의 줄임말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도 가장 먼저 전화를 찾고 밤에도 손에 전화를 쥘 채 잠드는 요즘 세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공포증이다. 휴대전화 중독이나 휴대전화 금단현상을 가리킨다.

8. 귀가 공포증 (nostophobia) '집은 마음이 머무는 곳' 또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속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965-0009 (광고)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20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250.00
		15.5 × 2.8cm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



# “고마워요, 날 지켜준 그대!”

(1면에서 계속)

500여 편을 분석한 결과, 가정과 관련된 설교는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3.4%는 가정이 아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가정 이야기가 12.2%, 자녀가 8.2%, 부부가 4.9%를 차지했다.

‘부부’를 주제로 한 설교가 가장 적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목회자들이 어머니나 어린이에 비해 부부를 주제로 설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나 행사로서는 가정의 달 사역들이 진행되지만 주일 예배에서 가정에 대해 듣는 설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이 소중하고, 아이들이 중요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정서적 충동은 있지만 실제적인 노하우나 매뉴얼이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되지 못하다는 교회 환경을 말해주고 있다.

크리스천 가정의 건강성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자 방편이 된다. 특히 이혼율과 싱글맘/대디 그리고 동성결혼의 카오스로 뒤덮인 미국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감동의 쓰나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가정의 달을 이벤트(?)가 아닌 중요한 사역 기간으로 정해, 예배나 설교 그리고 실제적인 매뉴얼 준비에 이르기까지 재고에 재고를 거듭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문화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1) 고유문화를 만들자.

다른 가정과 비교해 상이점을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족 모두의 창의력을 기르고 성장하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 중에서 엄선해 슬라이드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삼촌, 고모들을 만나 인터뷰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시킬 수도 있다.



2)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나 문화생활이나 공동 공간을 만들자.

가장 흔한 방법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 같이 영화를 보는 “Family Movie Night”이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가까운 산에 가서 같이 걷는 산행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3) 봉사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자.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 보호 시설에 방문해서 음식 봉사나 거주 커뮤니티 걸거리 청소 등 가족이 모두 같이 섬길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가족의 사랑은 봄날의 꽃피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응집되고 커져갈 것이다. 날마다 가족의 온도가 상승하고 향기가 짙어져 어느새 가족 상호 간에 잘못된 점이나 취약

한 부분을 핀잔 없이 고쳐 주고 보강해 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의 바깥이고 내부이며 자식은 부모의 전부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아가페이며 온도차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식의 진수고 자식은 부모의 진수다. 궁극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인격체로 대하고 자식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부모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공경할 때 행복은 저절로 넘쳐흐른다.

결론으로, 싱어송라이터이자 밴드 기억나무 보컬리스트인 황재웅은 “가족이라는 이름...”이라는 곡으로 우리가 어떻게 5월을 맞이하고 지내야 하는지를 노래한다:

“듣기만 해도/가슴이 먹먹해지고/고마움과 슬픔에/눈물이 흐른다/부족한 나를 감싸주고/안아준 가족들/지친 몸을 이끌고/집에 오면/그대들의 작은 숨소리에/난 안도감을 쉬고/언제나 지금 이 순간처럼/그저 같이/숨 쉴 수만 있었다면/난 더 바라는 게 없어/그게 행복이고/지금 나에게 큰 힘이야/고마워요 날 지켜준/그대 사랑해요/내 눈이 당신을/본 순간부터/영원히 함께였으면 좋겠어/그래야만 그래야만 해요 우리/절대적인 영원이란 없었지만/그래도 난 믿고 싶어요/그 영원의 시간/날 지켜준 만큼/이제 내가 그대들 뒤에서/언제나 지켜드리고 싶어요/늘고 지쳐 쓰러지지만은/않았으면 해요/언제나 지금 이 순간처럼/그저 같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난 더 바라는 게 없어/그대가 없다면/나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고마워요 날 지켜준/그대 사랑해요/내 눈이 당신을 본 순간부터/영원히 함께였으면 좋겠어/그래야만 그래야만 해요 우리.”

# 흔들렸지만, 굳건하게 서 있다!

(1면에서 계속)

무고한 사람 살해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치광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단 BBC에 따르면, 수니파 극단주의단체 이슬람국가(IS)가 23일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스리랑카 정부는 애초 스리랑카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조직 NTJ(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를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이번 연쇄 폭탄 테러는 국외 테러 단체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며 외부 개입설을 제기했다.

IS 선전매체 아마크는 23일(현지시간) 오후 “IS의 ‘전사들’이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구성원과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 SNS 성명을 통해 ‘신성모독 휴일’에 테러를 자행한 8명이라며 이름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IS가 지난 3월 본거지를 잃었지만, 그 영향력이나 신념을 지닌 구성원들이 세계 각 곳에 남아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IS와 NTJ의 연관설을 비롯해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JMI의 연계설도 주장되고 있지만 확실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 국가적 내분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확한 상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라크 북부에서 거점을 잃고 패퇴한 IS가 아시아권으로 진출하여 현지 자생 무슬림극단주의 단체에 ‘지하드’ 개념 세뇌와 함께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이번 테러가 발생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

기에 현 스리랑카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정보 시스템 제어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만들어내게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지난 달 초부터 외국 정보기관이 통보한 특정 단체의 공격 경고 문건을 받고서도,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스리랑카 현지 크리스천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먼저 월드는 “동요되기는 했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Shaken, but not broken’: Christians in Sri Lanka reel from Easter attacks that underscored the reach of global terror)”라는 제목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한다. 불교도가 대부분인 스리랑카에서 크리스천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카톨릭이 7%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2%에 불과하다.

(11면으로 계속)



# 시론

# 헤아림!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어머니날을 맞아 이색적인 현수막이 서울의 한 동네에 걸렸습니다. “꽃으로 통칠 생각 마라. -엄마가” 어머니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는 것만으로 통치고 지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이 주는 경계경보 발령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먹이는 엄마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현수막 위에 “엄마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더 헤아릴 수 없겠니?” 말씀하시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아마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서는 이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 아이에게 좋다면 안 먹던 우유도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고, 아이에게 무리가 같아봐 걷는 것도 조심조심, 그렇게 노심초사한 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엄마들은 세상에 태어난 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이름 한자 한자 써 가면 박수치고, 가게 가서 거스름돈만 잘 받아와도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아이인 줄 알고 기뻐합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갖고 뽀뽀만 대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린의 대가가 될 것처럼 뿌듯하게 자랑스러운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착각이라도 즐거운데 어쩔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이 착각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나면서 그 착각이 현실을 만나 하나씩 깨어져 가지만, 그렇다고 그 즐거움과 사랑이 좀처럼 식어지지 않는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커가면서 효도하든, 불효하든 관계없이 어머니들의 마음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변해도 어머니는 한결같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이든, 나이가 들었든 관계없이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 “아이”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38,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 우리가 자녀일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들도 어느덧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속 썩일 때면, “나도 저랬지!” 하면서 더욱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도 지금 내 마음과 같았겠구나! 어머니! 오직 당신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즐거움은, 오직 당신의 사랑은 바로 “나”인 것을, 오직 당신의 삶 전체가 바로 “나”인 것을... 이제야 깨닫고 코끝 찡하니 느껴져, 쪼그라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아 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더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들어서 아무 것도 못하실지라도 계시다면, 계시는 그 자리 하나만도 너무 소중한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은 계시는 때는 무심하다가도, 안계시니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어머니! 계시 때 잘해야 합니다. 옛시조에 “아버이 살았을 적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엔 애달다 어이하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라고 합니다.

한국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몇년전 사랑의 염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당선된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걸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줍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밤삼 차려 주시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참 마음이 저려옵니다. “꽃으로 통칠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그 현수막 위에 담긴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오버랩되어 느껴집니다. (11면으로 계속)



## Global Leadership Forum & 2019 Commencement

###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학위 수여식

세계 미래 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한 Midwest University는 미국의 높은 교육 장벽에 도전하여 많은 난관속에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여 이제 33 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글로벌 리더십 포럼과 학위 수여식에 교민 여러분과 동문 가족을 초청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John R. Ashcroft, JD**  
Missouri Secretary of State  
현, 미주리주 국무장관



**Dr. James Song**  
Founder / President  
설립자, 총장



**Dr. Jong Yong Lee**  
Pastor, Cornerstone Church  
Harbor City, CA



**Dr. Se Cheon Eom**  
Midwest Professor  
교육 리더십 교수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Midwest Summer Seminar**  
May 20-23, 2019

**Global Leadership Forum**  
May 23, Thursday 9:00-12:00 pm

**Commencement**  
May 23, Thursday 3:00 pm

**IEA Ordination Service**  
May 23, Thursday 6:30-8:00 pm

**경영대학(원) B.A 경영학, 마케팅, MBA 리더십, 투자, 자산관리, 부동산, 비즈니스 경영, 공공정책과 행정, 공공 안전, 보안, 마케팅, 인력관리 리더십, 지역개발, 분쟁조정과 협상**

**국제항공대학 B.S 국제조종사, 항공정비사 (FAA 조종사, 정비사 면장과정)**

**교육대학원 M.A Education 두뇌개발과 영재교육, 기독교교육 M.A English Education (TESOL) 영어교육석사**

**신학대학(원)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D.Min 상담, 선교, 교육, 목회신학**

**상담대학원 M.A 결혼과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학교상담**

**음악대학원 BM, MM, DMA**

**리더십 대학원 MBA 글로벌 리더십 Doctor of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Ph.D. in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같다. 모두 같은 진리를 가르친다. 어떤 종교도 자기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종교에 무지한 사람들만이 그런 주장을 한다.” 여러분도 모든 종교가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5대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그리고 힌두교를 살펴보면 구원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가르침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다는 종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입니.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둘 다 틀린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둘 다 맞다는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300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는 힌두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가지 요가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육망이 인간의 최대 문제이며, 팔정도(팔정도는 실천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다. 극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어진다)”고 가르치는 불교도 자력종교입니다.

선민사상을 주장하는 유대교도 율법을 지킬 때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코란의 계율을 지키고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아 질 때 구원을 얻

게 된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신이 인간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서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보낸다”고 가르치는 이슬람도 역시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Done)”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길, 또 하나의 진리, 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는 독선적인가요?

3x3=9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왜 ‘9’만 정

답인가요? ‘8’이나 ‘10’이 어때서요? 겨우 하나가 많고 적은 것뿐인데...”하며 불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9’가 정답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편협한 사람입니까? 독선적인가?

여러분은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라는 결혼서약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속이 좁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신랑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사회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 없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까(롬3:10).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와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분들도 다시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홈커밍(Homecoming)하시지 않겠습니까?

#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뉴욕셋세마네교회)



로마서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로마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 로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교회들을 세운 것으로 봅니다.

즉 로마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나 전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기보다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도시들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 회당은 기존의 신도들을 많이 잃게 되어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것이 끊임없는 분란과 폭동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들의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또한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에서 애절한 소원을 가지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변화 받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변화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오직 축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쓰임 받고 있습니까?

된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stand” 서다.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sit” 앉다 라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사람이 걷다보면 서게 되고 서다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한 리듬으로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날 경우 비록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을 지라도 이런 것들을 향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과 성결한 삶을 사는 친구들을 많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되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좋은 찬양을

백하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 가장 위대한 기도는 셋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고 완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우 비록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을 지라도 이런 것들을 향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숙이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속박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변화 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도 도전을 받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더욱 더 갈수록 악합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 받은 삶을 살아가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nygo4tgc@yahoo.com

## 변화 받는 삶 (로마서 12장 1절~2절)

합니다.

1.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야 변화 받는 삶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탄 앞에 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드리라”는 말은 본래 구약시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라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보다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제단위에 드릴 때 각을 찢었습니다. 죽은 제물과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 있는 제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지요?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신의 의지로서 결단만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

2.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변화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즉 우리 몸을 드러야 합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와 변화를 받으라는 두 의미가 대조를 이룹니다. 영어단어로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conform을 사용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 중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아서 걷지 아니하며 walk

영감이 가득한 찬양 행렬의 클래식 음악이나 아름다운 복음 찬송들을 들어보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이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변화 받을 것입니다.

3.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변화 받는 삶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조절을 맞추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지는 열쇠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꾸어지면 의지의 변화가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의 의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 도다”라고 바울은 고

(2면에서 계속)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집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 밖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욕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졌다. ‘집으로 돌아가다’는 뜻의 그리스어 nostos에서 유래했다. nostalgia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군인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은 특히 중년 남성이 직장일이 끝난 뒤에도 집에 들어가기 꺼리는 현상을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9. 긴 단어 공포증 (sesquipedalophobia)

이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긴 단어를 두려워한다. 이 공포증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만 봐도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진다. ‘1.5’를 뜻하는 라틴어 sesqui와 ‘발’을 의미하는 pedal, 그리고 ‘두려움’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phobos의 합성어다. 단어가 1.5피트에 이를 정도로 긴 것을 두

려워 한다는 뜻이다. hippopotomonstrosesquipedaliophobia라고도 한다. 36개의 철자로 이뤄져 보기만 해도 질릴 수밖에 없다.

10. 공포 공포증 (phobophobia) 공포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

포증과 함께 오는 감정을 무서워하는 증상이다. 자신이 공포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끊임 없이 하면 이 공포증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른 공포증과 달리 주변에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반적인 불안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 학계에선 이를 일종

의 ‘부동성 불안’으로 본다. 부동성 불안은 명확한 대상 없이 불안 느끼는 신경증이다. 불현듯 불안이 엄습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도가 심하다.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미조리 주하원, 공립학교 성경 선택과목 발의안 통과

미조리 주에서 미국 전역 공립학교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조리 주에서는 지난 3월 중순에는 무분별한 낙태를 제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귀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 드렸었는데(참조링크: <http://tvnext.org/2019/03/missouri-most-restrictive-abortion-law/>) 몇 주 전에는 미조리 주 학생들이 성경을 선택수업으로 세계 역사나 또는 문학에 연결시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미조리주 공화당 소속의 벤 베이커(Ben Baker, R-Neosho) 하원의원에 의해 발제되었으며, 4월 초에 95-52로 미주리 주 하원을 통과하고 곧 상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공립학교에서도 마치 크리스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처럼, 역사시간과 문학시간을 통해 '성경이 어떻게 역사와 문학 발전에 기여했는지', '인류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성경을 기초로 한 역사적 인식과 문화 배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참으로 감사한 기회입니다.

성경을 공립학교 교과목에 넣는 것을 발제한 벤 베이커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이 법안을 발제한 베이커 의원은 현재 목사 겸 선교사이며, Neosho에 있는 Ozark 성경연구원의 교수로 역임했고, 지금은 학장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벤 베이커 의원은 이 발의안이 법안으로 될 경우, "성경에 관한 선택과목을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세계 역사 및 문학 수업과정에서 성경의 지혜를 동반한 문학에 관한 지식-world literature courses to include information on wisdom literature)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그 필요성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만일 미조리 주 상원과 Mike Parson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이 발의안은 정식 법안으로 통과될 것이며, 그와 함께 사회학, 문학 교사가 먼저 성경 지식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이 수업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개별 학교들에 따라서 이 수업을 선택과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치 반기독교 성향이 가장 짙은 주(State)로 알려진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교사들이 먼저 동성애 성

교육,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라이 스타일을 "교육" 받아서 학생들에게 동성애 라이프스타일과 동성애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교사들을 훈련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은 비슷합니다.

단지 이 법안은 무분별한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악법에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와 그들의 행복에 유익한 성경적 개념과 역사적 의식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 이 법안의 목적

"이 성경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성경의 내용/인물/서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성경이야말로 학생을 비롯한 모두가 꼭 읽고 교훈 얻어야 할 책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으며, 어느 교사가든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성경 번역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르는 학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학교들에게 공립학교 환경에서 이 성경 수업을 위해 교사들에게 보다 더 잘 가르치도록 도울 수 있는 훈련(training)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이 발의안은 성경에 대한 수업의 과정이 미국 헌법 제 1조에 부합하는 지침을 충족하는 한, 어떤 주 정부나 학교, 그리고 지역 교육 기관도 이 가르침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지금까지 성경이 공립학교에서 선택 수업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과된 주들은 적어도 6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조리, 노스다

코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그 외에도 켄터키, 미시시피 등 성경을 공립학교에 다시 들여보내려는 기독교 정신을 따르려는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 반대 진영의 격렬한 폭풍 반대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미국 1963년 이전처럼 공립학교의 수업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것은 수십년 뒤에서 이름 없이 애쓰는 교수, 목사, 정치인들에게는 매년 그들의 생명과 가정에까지 큰 위협을 당하는 일입니다.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같은 대표적인 반기독교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미국전통에서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워진 사탄교(The Satanic Temple) 같은 단체들도 그들의 재정, 힘, 정치적 권력까지 다 사용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조리 주에서 성경수업이 일차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축하와 남은 과정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현 정부는 성경말씀이 다음세대를 지켜줄 것이라는 언급을 여러 번 한바 있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매뉴얼 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든 부분에서 유익하고 지혜가 넘쳐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서구는 어떤 나라들보다 발전했으며 특별히 미국은 짧은 200년 역사 속에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 언어, 사회, 심리학, 과학까지도 다 포함하여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총체적 부분에서 인간들에게는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며 기초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사이며 지혜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십대 학생들에게는 성경만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를 참고하시고 기도제목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희 교회 목사님은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로마서를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성지순례 차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 세계를 재패했던 로마제국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버디스 김 권사

**A:** 로마는 현재 이탈리아로서 지중해 중앙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으며 남쪽에는 시실리아 섬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전승 혹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트로이 함락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40년이 넘는 기간을 로마에서 로마사를 연구한 일본인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1)"를 읽어보면 보면 로마 건국의 다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로마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문학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따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안의 풍요로운 도시인 트로이는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군의 공격을 받아 10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방전도 드디어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때가 기원전 13세기 무렵이다. 그런데 해변에 서있는 거대한 목마를 발견한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그리스군이 공격을

### 로마는 트로이 목마에서 탈출한 아이네아스의 자손이 세워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남긴 선물로 오해하고 10년 동안 지켜온 트로이 성안으로 목마를 끌어들이고 말았다.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한 트로이 병사들이 깊이 잠든 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한사람씩 땅에 내려왔습니다. 화염과 아비규환에 휩싸인 트로이는 그 날 밤에 함락되고 말았다. 왕족도 서민도 가차 없이 살해되고 목숨을 건진 자는 노예가 되었다. 이 같은 참극 속에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인 아이 네아스만이 일족을 이끌고 탈출에 성공한다. 아이네아스 일행은 몇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불타는 트로이에서 탈출했다. 여러 섬에서 카르타고를 거쳐 이탈리아 서해안을 북상하여 로마근처의 해안에 이르러서야 겨우 끝났다. 아이네아스가 죽은 후에 그와 함께 트로이에서 탈출한 아들 아스카니오스가 왕위를 물려 받았다. 그러나 아스카니오스는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뒤 그 땅을 떠나 알파 롱가라고 이름 지은 새 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이 뒷날 로마의 모체가 된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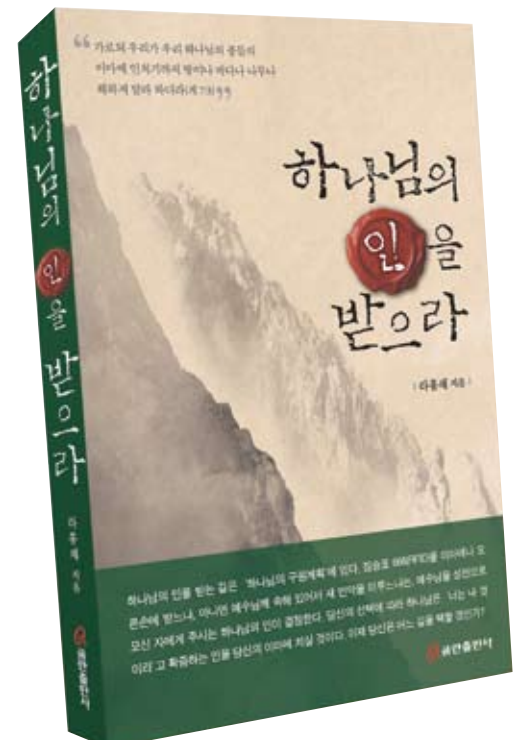
이때부터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할 때까지 많은 전설적인 왕들이 잇따라 등장을 하지만 예로부터 로마인은 기원전 753년에 로마를 건국한 것은 로물루스이고 그 로물루스는 트로이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네아스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산지인 알파롱가는 너무 비좁고 방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자란 테베레 강 하류에 도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로마로 불리게 된 곳입니다. 건설자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로마는 이렇게 탄생했고 본래 테베레 강 왼편의 라틴 평원에 자리한 구릉지대에 세워진 유목과 농사에 종사하던 촌락이었습니다. 로마는 초창기에 에스투리아인들의 지배를 받았으나 1, 2세대가 경과 한 후로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로마는 처음에는 라티움의 지배자, 그 후로는 이탈리아 전역을 장악하는 대군주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 화려한 정치, 상업, 문화, 군사, 학문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에 "로마도 가야 하리니"(롬19:21)하며 로마 선교의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면 부채질 모양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이란의 브라후이(BRAHUI)



파키스탄에 230만 명의 브라후이인의 다수가 사는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을 따라 이란 동남부에 거주하는 브라후이족은 15,000명 정도다. 브라후이족은 그들의 가족 때를 위해 목초지와 물을 찾아 종종 국경을 넘나들기도 한다. 일부 부족들은 수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살다 지역을 옮겨 이사해서 살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생활을 반복하기도 한다.

브라후이족은 1600년대에 권력을 잡기 위해 힌두 왕조를 전복시켰다. 1700년대 나시르 칸(Nasir Khan) 시대에 그 연합체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브라후이인들은 29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8 부족이 브라후이의 진짜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브라후이족은 그들이 브라후이디어(Brahuidi)라고 불리는 드라비다어(Dravidian langu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웃인 푸쉬툰인(Pushtun), 발루치인(Baluchi)과 구별된다. 언어학자들은 이 브라후이족이 남부 인도의 드라비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1000마일이나 떨어져 살면

서 어떻게 관련됐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 삶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브라후이족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브라후이족 대부분은 주로 유목생활을 하며 그들의 가족 때를 위한 물, 적절한 온도, 강우, 목초지를 따라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를 이동한다. 이들은 45마일 이상 떨어진 무물들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이동하기도 한다.

고산지에서의 겨울은 얼음이 얼고 춥다. 그런 계절에 브라후이족은 평야에서 산다. 이들은 2-3월에 새끼 양들이 태어난 후에만 산지로 간다.

브라후이족에게는 복수의 법 이외에는 법이 없다고 하며, 강한 사막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으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유년시절부터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이들의 저항력은 점차 커져간다.

브라후이 양치기들은 그들의 가사 일을 협력하기 위해 "칼크(khalks)"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각 칼크는 상주하면서 일하는 직업적인 한 명의 양치기와 한 무리의 양떼로 구성된다. 이 상주 양치기(resident shepherd)는 양을 500마리까지 담당한다. 이것으로 인해 어른, 아이를 포함한 남자들이 밀수확을 위한 마을농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후이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상주 양치기는 남자들을 시켜서 가축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다른 브라후이들과 아영지의 위치나 양떼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칼크" 이용으로 인해 브라후이족은 전문적인 양치기가 됐다. 이들은 양들을 함께 방목할 수 있는 최적 숫자를 알

아냈고, 양들이 숫자가 적은 조건에서 흩어져 돌아다닐 때 편안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의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양치기를 그룹을 나눠서 새로운 "칼크"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이동한다.

결혼은 가족 내에서 중매로 이루어진다. 가끔 친척이 아닌 경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의 희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쪽의 사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나,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이 관습이 제한받곤 한다. 이혼은 브라후이족에서 거의 없다.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결혼한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산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형제들은 장자의 통솔아래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산다.

부족(The tribe)은 브라후이족의 정치적인 기본단위다.

부족들은 부자승계(patrilinal descent)와 정치적 연합에 그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

#### 신앙

대부분의 브라후이족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기도, 금식, 자선,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는 고백, 메카로의 순례여행)에 충실하다.

####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한 선교단체가 이란의 브라후이족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이들에게는 중보기도와 더 많은 복음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들의 거친 유목민적인 생활양식에 가까이 적응해 이들 사이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검은 양' 스리랑카 테러 주동자 '살해' 설교

253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리랑카 연쇄 폭탄 테러 주동자로 알려진 자흐란 하심이 콜롬보 샹그릴라 호텔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저지르는 도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셔널타우히자마트(NT)의 지도자인 하심은 지난 23일 이슬람국가(IS)가 스리랑카 테러를 감행한 8명의 영상을 공개했을 때 유일하게 복면을 쓰지 않고 가운데에 서있던 인물이다. 하심은 학창시절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하심은 고학력자이거나 재계 거물이었던 다른 테러범들과 달리 빈민가정 출신인데다 퇴학을 당한 경력도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상인이었으나 좀도둑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네 명의 형제자매들과 방 두 개짜리 좁디좁은 곳에서 근근이 생활했다.

하심은 12살부터 스리랑카 바티칼로아의 한 신학교에 다녔고, 당시에는 공부에 열의가 있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는 3년 동안 코란을 외웠고, 그 뒤론 이슬람 율법을 배웠다. 그러다가 점점 근본주의에 빠지게 됐고, 교사들은 하심이 코란을 과도하게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우려했다.

하심을 가르쳤던 한 교사는 "그는 급진적 이슬람을 원한다고 밝혀왔다"고 NDTV에 말했다. 허구한 날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던 그는 결국 몇 년 뒤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심은 퇴학당하고 나서도 무슬림 지역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다. 그는 2006년 이슬람 사원인 다를 아타르에 들어가 사원 관리 위원회에서 일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보여 3년 만에 내쫓겼다.

사원의 이맘(이슬람 성직자)은 "하심은 종교계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했고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며 "그는 여성이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는 등 과도하게 보수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슬림 사회에서) 자유를 깨뜨린 '검은 양(흰색 양에서 태어난 돌연변이)'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심은 달변가의 면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하심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직접 소규모의 이슬람 사원을 설립했다. 이후 그의 유창한 연설 능력을 악용, 주변 사람들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시켰다고 NDTV는 설명했다.

그의 추종자들이 이슬람 신비주의의 분파인 수피교도를 흉기로 찌른 적도 있다. 당시 일부 스리랑카 주민들이 하심이 운영하는 사원의 위협성을 사전에 당국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심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IS의 사상을 접한 뒤로 그의 연설은 더욱 극단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하심의 여동생인 마타니아는 "인터넷상에서 IS의 관점을 접한 하심의 사상은 점점 급진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하심의 설교를 들은 한 주민은 "그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며 "그건 이슬람 사상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이었던 지난 21일 테러 이후 추가 범행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성당과 교회, 이슬람 사원 모두 예배를 자제하고 미국은 스리랑카 주재 공무원 자녀들에게 귀환을 명령했다.

#### 영국 최초 한인 목회자 김복경 목사 별세

런던한인교회 담임목사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복경(사진) 목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1세.



김 목사는 영국 한인 교회로는 최초로 1978년 설립된 런던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65세에 조기 은퇴한 후 2003년 한국의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총장으로 취임해 4년간 봉직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북경이란 이름을 갖게 된 그는 중국선교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유족으로는 영국인 부인 신시아 사모와 딸이 있다. 장례식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킹스턴 런던한인교회(유병현 목사)에서 치러진다.

#### 바이든, 2020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미국 민주당의 2020년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25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성추행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자들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압도하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유튜브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출마 각오를 밝혔다. 그는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위협에 처해 있다"며 "만약 우리가 트럼프에게 백악관에서 8년을 준다면 그는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성격,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꿀 것이며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나는 역사가 이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믿는다"며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를 일탈의 순간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 선언이 전해지자 트위터에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총명성을 갖기를 바란다"며 "나는 그저 당신이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오랜 기간 의심스러웠던 총명함을 갖기를 바랄 뿐"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생기 없는 조(Sleepy Joe)'라고 표현하며 깠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강하게 그를 경계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으면 바이든은 42%, 트럼프는 34%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로써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19번째 후보가 됐다. 그는 경선 후보 중 최고령자인 버니 샌더스보다 고작 한 살 적은 76세의 고령이다. 하지만 출마를 공식 선

언하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이번은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그는 1998년과 2008년에 각각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2008년 경선에서는 경선 초기 후보를 사퇴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됐다. 이후 2017년까지 8년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내며 신망을 쌓아 2016년 대선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지목됐다. 하지만 선거등록 직전 잠남 보 바이든 전 델라웨어주 법무 장관이 뇌종양으로 사망하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다. 그는 최근 당내외의 '미투' 폭로로 궁지에 몰렸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이 "2014년 선거 지원을 위해 찾아온 바이든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뒤통수에 오랫동안 키스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 세 명의 여성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며 '소름끼치는 조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가 제대로 사과하는 대신 "앞으로는 개인 공간을 존중하겠다"는 해명만 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 5년 만에 등장한 IS 수장 "기독교에 복수할 것"

중적을 감췄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7)가 5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알바그다디는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가 IS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럽 등지에서 기독교도를 겨냥한 테러를 계속 일으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심판의 날"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IS 선전매체 알푸르칸은 29일(현지시간) 알바그다디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1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알바그다디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건 2014년 7월 이라크 모술 알누리 대사원 설교 장면을 공개한 이후 처음이다. 영상의 구체적인 촬영 시점이나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지난 21일 발생한 스리랑카 테러를 자신이 나오는 영상이 끝난 뒤 육성으로만 잠깐 언급한 점으로 보아 촬영은 수주 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과 달리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기른 알바그다디는 이슬람교 예복과 베이시제 조끼를 입고 양반다리를 한 채 발언을 했다. 그는 "바그다드 전투가 끝났다"며 "그것은 무슬림 사회를 향한 기독교인들의 잔혹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군과 시리아민주군(SDF) 등은 지난달 말 IS의 최후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그다드를 공격해 탈환한 바 있다.

알바그다디는 IS가 스리랑카 테러의 배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영상에서 "스리랑카에 있는 형제들이 부활절에 십자군(기독교인)의 거처들을 파괴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테러 용의자 중 1명이 5년 전 IS에서 최소 3개월간 훈련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테러로) 숨지거나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한 복수를 할 것"이라며 "서아프리카 무장세력은 프랑스와 그들의 동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IS가 스리랑카 연쇄 폭탄 공격에 이어 유럽 국가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미군 주도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탈환한 뒤 IS가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공언했지만, 알바그다디가 재등장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알바그다디의 영상은 IS가 여전히 건재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공격을 이어갈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폴린 클라크 미 수관센터 선임연구원은 "알바그다디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IS 추종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른 극단주의 세력에게 자극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71년 이라크 사미라에서 태어난 알바그다디는 대학 시절 이슬람학을 전공한 뒤 '코란학(koranic studies)'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성경 이슬람주의에 빠져들었다. 알바그다디는 IS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한 이후인 2014년 자신을 '모든 무슬림의 통치자'라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추종자들에게 55분가량의 육성 메시지를 통해 시리아 등지에서 IS의 패배에도 굴하지 말고 계속 싸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탈북민 7명 中공안에 체포, 복속 위기

9세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복속 위기에 처했다.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해 중국 선양 외곽에서 도피 중이던 최양(9)과 최양의 삼촌 강모(32)씨가 지난주말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탈 초 압록강을 넘어 탈북했고 은신처에서 이동을 대기 중이었다. 체포 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들도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살고 있는 최양의 어머니는 딸과 오빠의 소식을 접하고 28일 저녁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교회에 출석하는 최양의 어머니는 지인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에서 "지금 외교부에 알려 딸을 포함한 탈북민들이 복속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며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또 이날 오전 한국의외교부를 방문해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동포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대우해 달라"며 거듭 보호 요청을 했다.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은 국제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공안에 체포된 최양과 탈북민에 대해 중국 정부의 강제복속을 심각히 우려하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이달 초 베트남에서 체포된 3명의 탈북민들을 주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이 수수방관하고 외면하는 바람에 중국으로 강제송환돼 복속위기에 처해진 실례가 있다"며 "그러한 외교적 무능의 인상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하고 강제복속을 중지해야 한다.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72. 이옥형(1884-?)

이옥형은 1884년경에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4년 7월 8일에 20세의 단신으로 몽골리아 선편으로 하와이에 도착했다. 2년 후 남가주 레드랜드 공립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진다. 북가주 새크라멘토(삭도), 남가주 리버사이드(하번)를 거쳐 1908년 10월에는 남가주 클레어몬트의 한인 학생양성소에 입학하고 지역 공립학교 6반(6학년)에 입학했다. 4개월 후인 1909년 2월에 하번으로 이주한 그는 레드랜드와 로스앤젤레스(나성)와 중가주 롱뷰를 거쳐 1910년 6월에 공업을 공부하기 위하여 다시 나성으로 이주했다.

그는 철새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노동하면서 공부와 기부에 힘썼다. 신한민보가 임시 휴간하자 5달러를 기부했고, 신한민보 식자기계 구매를 위하여 50달러의 거금을 기부했다. 앨랜드 병원에 입원한 길 원의 병원비를 위하여 55달러를 기부하였는데 신한민보는 '의리로 재물을 던짐이 가히 동포사회에 바람을 끼칠 만한 일이다'고 칭찬했다.

1915년 이옥형은 삭도로 이주하고, 이듬해 2월 국민회 북가주 삭도 지방회가 그를 구제원으로 임명한 것은 이상할 리 없다. 그해 8월에 신한민보를 위하여 50달러를 기부하는 등 동포 사랑과 나라 사랑을 잊지 않았다. 이옥형이 1916년 4월 13일에 기고한 아래의 "경쟁 시대의 한인의 실업"에서 위험한 풍요를 넘어 넉넉한 생존에서 그의 기부를 통한 민족 사랑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나라마다 그 민족을 위하고 사람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평안한 복락을 구할 새 각기 진화의 속력을 다하여 화를 같은 눈을 두르며 철장 같은 팔을 휘둘러 서로 앞서 나아가며 먹을 것을 다루나니 이것이 이른바 생존경쟁이라. 우리가 다행히 이 시대에 생존하였은즉 남과 같이 경쟁하여야 남과 같이 생존하리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향하여 먼저 경쟁 수단을 시험하는 것이 급무라 할까?

나라가 부하고 백성이 평안한 복락은 반드시 실업으로 좇아 생기나니 우리가 이때를 당하여 생존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하고자 할진 데 실업을 먼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노라. 그러나 한 가지 큰 의문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능히 실업을 잡고 오늘날 새로운 무대에 나가서 남과 한가지로 경쟁할 만한 지혜와 식견과 도량과 능력과 재력이 있는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상 몇 가지를 갖출 것 같으면 벌써 남과 같이 경쟁하는 마당에

뛰어나와 저 우등지 위에 처한 자의 어깨를 치며 달음질을 시험할지라. 무슨 연고로 팔짱을 끼고 벽 위에 앉아 남의 사업만 구경할 까닭이 있으리요. 그러면 한 번 승전하기를 해라! 연후에 동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장수가 아니라, 백번 싸워 백번 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견디며 험한 것을 무릎 쓰고 담력을 내어 적병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참으로 용맹스러운 장수이니 그러므로 용맹한 자가 아니면 감히 경쟁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겁내고 스스로 퇴축한즉 이 시대에 남과 같이 생존하기를 바라지 못하리라 하노라.

그러나 실업은 헛된 언론과 헛된 사상으로 경영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실지에 나아가 견습하며 경험하며 연구하여 남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발명할 재능이 있고 난 뒤에야 가히 이익을 도모할지니 20세기의 경쟁 실업이 그 어찌 쉬운 일이라 하리오. 경쟁의 본의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특출하여 남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 경험하여 보건대 저 전쟁에 수단이 숙련한 자들은 그 행동이 자못 과상하여 저희가 남보다 잘하고자 할 뿐 아니라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하여 사업을 실패시키고자 하는 악마의 수단이 심히 간사하며 공리가 능히 이를 금지할 수 없는지라. 이러한 경우를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남과 같이 경쟁할만한 정도에 있을지라도 필경 실패를 면할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국권이 없으므로 인하여 모든 세력이 따라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용납함을 얻기도 어렵고 설혹 사업에 착수할지라도 악마의 저의를 피할 수도 없는 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시대의 위험한 풍요를 면하고 넉넉히 생존함을 얻을까? 사람마다 다 각기 한번 연구하지 아니치 못할 하나의 큰 문제라 하노라."



신한민보  
1928년 10월 11일

### 20세 도미 후 이곳저곳서 노동하면서도 공부와 기부에 힘써 삭도한인교회 전도인으로 2년 재직, 군사운동으로 독립 주장

이옥형은 1916년 10월 3일 오후 8시 30분 상항 예배당에서 이대위 목사의 주례로 차이나 선편으로 상항에 입항한 서영애와 결혼한 후 남부 동포 50여 명을 상해루에 초대했다. 그는 삭도에서 이전에 하던 이발소 사업을 계속했고, 이듬해에는 제3가 길(스트리트) 1020번지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이발소 외에 목욕탕과 세탁소를 운영했다.

#### 삭도 한인교회 전도사

1928년 9월 3일 상항 부쉬 스트리트 916번지 남감리교회 예배당에서 감독 샘 해이 박사의 사회로 열린 미국 남감리교 연회에서 이옥형은 삭도 한인교회 전도인으로 임명되었다. 오를랜드와 삭도의 순회 목사인 임정구가 방문하지 않을 때는 이옥형이 예배를 인도하였고, 심방 등 목회를 담당했다.

그는 한국 수재 구제금, 이대위 목사 유족 구제금, 삼일절 행사, 국어학교 운영, 전병은 부인 장제 등에 교회

를 대표했다. 그가 전도인으로 임명되기 4개월 전에 예배당이 P거리(스트리트)에서 제6거리(스트리트) 1815번지로 옮겼다. 그는 후자의 예배당에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

그해 삭도 성탄절 행사에서 이옥형이 사회를 보았는데 전도인이 아니라 관사로 소개된다. 찬송가 제7장을 합창하고, 박종만이 기도한 후 사회자가 성경낭독을 하였고, 이정도가 바이올린 독주를 했으며, 유년부 학생들이 찬송가를 합창했고, 감지식이 개회사를 담당했다. 학생 일동이 찬송가를 합창한 후 정몽룡의 연설이 있었다. 학생들이 성경 요절을 암송하고 구주 성탄 역사를 소개한 후 찬송가로 합창했고, 박종만과 이정도가 감사담을 나누었다. 이정도가 독창한 후 김복난이 스페인 노래로 독창하였고, 찬송 3장을 부름으로 성탄절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그리고 시상이 있고 난 뒤 산타클로스가 등장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1929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버클리 웨슬리 남감리교회당 응접실에서 샘 해이 감독의 주관으로 연회가 열렸다. 이날 이옥형은 삭도 한인교

회 전도사로 연임되었다. 성탄절 행사에서 감상담 순서를 맡아 정몽룡과 허은과 더불어 이옥형이 감사 말씀을 나누었다. 한 달 전 그의 아들 이야콕이 외국 아이들과 놀다가 포르투갈 아이가 쓴 사냥총에 맞았으나 대상을 조금 스쳤을 뿐 생명에 위협이 없었다는데 이를 두고 감사했을 것이다. 새해에 들어서서 이옥형은 상항 한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예배와 삼일절 기념식 등의 행사에 교회를 대표했다.

1929년에는 오를랜드와 삭도를 합쳐서 출석 교인이 62명이었다. 이 62명 중에는 성탄절 행사에 참여한 김복난, 김지식, 박종만, 이정도, 정몽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기부

1930년 이후 그는 전도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옥형의 큰 기부는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하면서 계속되었다. 임정구 목사 모친 장례에서 비석 세우는 비용과 상항 교회가 돌보는 고아원에 터

키 한 마리를 보냈고, 신한민보사의 영문 주자 매입을 위하여 50달러를 기부했다.

이 외에도 한국학교, 김성수의 장례행렬 참가 특연금, 재만 동포 구제비, 내지 수재 동정금, 중국 항일전쟁 동정금, 임시정부 후원금, 국민부담금, 총회관 건축의연금, 삼일절 성금, 박양대 장의금, 삼일절 기념금, 의무금, 50달러의 특별위원, 내지 한재 의연, 신한민보 식자기계 의연, 광복군 후원금, 나성 한인 양로원 기금, 국어학교 의연금, 독립금, 상항 승전 행렬 참가비와 의무금, 원정 사관 후원비에 동참했다.

1934년 이전부터 이옥형은 서양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밤낮 개업하고 매일 수백 명의 식객이 출입하였다. 그는 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남기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조금씩 나누기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였는데 그가 '밤 먹을 시간과 잠잘 시간도 넉넉지 못하고 명절날도 없으나 돈은 그렇게 남질 않는다'고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기의 식당에 동포 4, 5인을 고용하였고 더욱 고마운 것은 가족출한 한두수에게 일자리를 주었음에 있다.

#### 군사운동을 통한 독립

국민회 삭도 지방회 회장을 역임하고 1943년에 국민회 제7차 대표대회에서 한인 정치단체의 통일을 꾀했던 중앙집행위원 15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옥형은 1947년에 국민회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임되었고, 1950년까지 김 호와 송헌주, 한시대 그리고 김용성 등과 함께 북미지역 국민회를 이끌었다. 1944년 1월 27일에 기고한 아래의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서 그의 군사운동을 통한 독립을 보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선의 참사람이 되자! 그리고 살길을 찾자! 또 산 사람이 되자! 인격으로 사상으로 꾸준하고 튼튼한 개성의 사람이 되자! 주의를 철저히 하고 직무에 충실하자! 내 재주보다도 내 이름보다도 내 이익보다도 일보를 진하여(나아가) 직무에 충실한 개성이 되자! 내가 스스로 서고, 내가 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고집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나 혼자만 따로 서려고 고집해서는 오히려 될 수 없다. 한 덩어리면 살고 각립하면 죽는다. 동포여! 같이 조선 국가를 건설하자! 이 대사업을 성취하는데 금일 우리의 당면한 급무는 군사운동이다. 군사운동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남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남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뚝독성(금-토): 오전 5:30 토요일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u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성)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1:30(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45-4010   bethel@bkc.org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영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Tel: (714)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얼바인침례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Tel: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성령대명회: 오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리더십 코멘터리 (8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라

예수께서 바라시는 참된 리더

최근 매스컴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 받은 리더는 '베트남의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일 것이다. 그는 인생 후반기에 낮은 타향에서 기적 같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그가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과정과 방법에 주목하게 된다. 박감독은 현지문화와 현지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했다. 어린 선수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자기 비행기 좌석을 부상 선수에게 양보하고, 우승 상금도 어려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기부했다. 쏟아지는 미담들은 단지 탁월한 능력보다 선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감독임을 보여준다. 그는 섬김의 지도력, 솔선수범의

저야 하는가? 그리고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리더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솔선수범'이다. 이 원리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신의 지, 정, 의를 통한 성화 노력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다. 솔선수범이 리더에게 필요한 행동양식이라면, 리더에게는 이와 함께 무슨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가?

①첫째는 비전이다. 리더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계해서 자신의 목표로 삼고 또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영적리더의 삶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여기에

양 의 출발점이고 감사의 원천이다. ⑦일곱째는 신실성이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신실함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영적리더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주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실함과 신뢰감을 쌓아가게 된다.

#### 솔선수범의 원칙

①행동양식과 원칙을 모델로서 준수하라. 기업이나 교회나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는 기본적인 체제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양식들이 있다. 이것을 문서로 만들면 규정이나 행동규범이 된다. 리더는 전통이나 규칙, 매뉴얼, 작업방식, 윤리규정 등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으로 그것들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리더는 조직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본 행동양식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힘든 일을 먼저 하라. 힘든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누가 하느냐가 지켜보고 있다. 리더는 문제가 생기면, 뒤에 서서 사람들을 내모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함으로써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지금 내 주변에 힘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리더가 앞장 설 일이다.

### '솔선수범'은 성경원리... 행동양식과 원칙 준수, 힘든 일 먼저 리더는 비전, 지혜, 동기부여, 용기, 자기이해, 신실성 갖춰야

리더십을 통해 자신감 없는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로서 자신감을 갖기 원하는가? 그 해답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리더십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의 필수요소는 솔선수범과 모범정신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조직과 공동체의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지 않는 지휘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기업의 조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예수께서 진실로 바라시는 참된 리더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남과 자신을 비교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임을 잊지 말자.

리더에게 필요한 준비와 노력

경영이 "다른 사람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과정"이라면,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을 이끄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탁월한 리더는 어떤 역량이나 태도를 가

해당한다. ②둘째는 지혜이다. 리더에게는 창의성과 경영지식, 그리고 관련 전문지식들이 요구된다. 아울러 리더에게는 직관력도 필요하다.

③셋째는 동기부여이다.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리더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④넷째는 용기이다. 탁월한 리더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헤쳐 나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영적리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할 때가 있다.

⑤다섯째는 네트워크이다. 리더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적리더는 교제와 나눔을 통해 신앙을 발전시키고 고전히 해야 한다.

⑥여섯째는 자기이해이다. 리더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과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영적리더의 신

③의욕과 열정을 보여라.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요구되는 행동모범 중 하나는 의욕과 열정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과 공동체에서의 성과는 능력보다는 태도와 동기부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리더의 의욕과 열정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이저(energizer)이다. 의욕과 열정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다.

④자기혁신을 통한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보여줘라. 리더십과 행동은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변화의 흐름이 있다. 그러므로 리더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여야 한다. 조직과 공동체의 환경, 고객과 구성원들의 환경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스스로 혁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행동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방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솔선수범의 원칙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격의 없는 소통의 풍토를 만들어 가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33주년 기념 글로벌 리더십포럼 및 학위수여식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1986년 세인트 루이스 인근 윈츠빌에 설립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Dr. James Song, Founder/President)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교 33주년을 맞아 여름 세미나,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학위수여식, IEA 목사 안수식을 본교 대강당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드웨스트대학교는 미국연방정부국무성(USDS)으로부터 J-1비자를 허가받아 교환교수, 연구원, 미국 기관, 회사에 유료 혹은 무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원비자, 인턴비자를 위한 DS-2019를 직접 발행하며, 정부 각 부처의 4-5급 공무원들이 1-2년 연구프로젝트 가지고 미국의 주정부 기관, 주의회, 카운티, 시청 등 공공 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비자는 물론 인턴십 호스트 기업, 공공기관 등 유, 무료 인턴십(6-12개월)을 연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부설 국제연구센터(IRC)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MIRI)를 통해 미주리 주정부, 시청과 함께 창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www.midwest.edu를 방문하거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 6년 만에 첫 결실, 10명 배출 남미아태대학원 이마존 Coari성경대학교 졸업식

남미아태대학원(원장 강성철) 부설 아마존 Coari성경대학교(학장 지덕진)는 지난 4월 26일 6년 만에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아마존 강변 지도자를 세웠다. 동 교는 2012년 시작해 첫 열매를 맺었는데, 4박5일 집중교

육을 통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을 가르치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 양육, 성장, 성숙에 이르도록 리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기사제공: 남미아태대학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b>뉴욕망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성경부: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매주1주,3주)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경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청년예배: 오후 3:20(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목요일예배: 오후 8: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b>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b>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필리핀을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 목회서신

## “육신의 몸과 영혼”



여승훈 목사  
(베이크스펠드 아름다운교회)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질병과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비즈니스의 실패로 인한 절망감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과 불의의 사고로 삶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필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앞에서 안타까움을 종종 쏟아내곤 한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들에

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정말 난감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19:10). 여기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대상은 영혼이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대상이 영혼이라는 사실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다. 여기서 ‘육신의 몸’과 ‘영혼’

을 비교해 보겠다. 육신의 몸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비즈니스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만약 이런 물질세계의 필요를 원천적으로 부인한다면 복음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틀림없을 것이다. 복음은 분명히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라고 성경은 요청한다. 그런데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간구하면 항상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비즈니스가 어려운 사람들이 비즈니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반면에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했는데 비즈니스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으려고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

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 보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건강과 비즈니스와 직장 등 현실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공급해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런 필요에 대한 공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하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 당신의 영혼이다. 육신의 몸과 현실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필자가 그렇게 말해주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파산선고를 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회복이 있다. 영혼의 회복이다.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영혼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물질세계의 필요가 공급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라. 동시에 물질세계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라. 왜냐하면 육신의 몸과 삶이 겪는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게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영혼이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물질세계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라.



OC장로협 주최 구국기도회에서 손인식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대한민국, 북한동족, 미국과 OC동포 위해 OC장로협 주최 구국기도회, 설교 손인식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태수 장로) 주최 대한민국, 북한동족, 미국과 OC동포들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하나교회(박종기 목사)에서 4월 28일 오후 5시 열렸다. 김종만 장로 찬양인도와 김태수 장로 개회기도로 열린 구

국기도회는 손인식 목사가 ‘빛을 발하라’(사60:1-3)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으며 탈북민 김영순 대표가 ‘저주의 땅이 된 북한’, ‘요덕수용소의 비명’,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북한동족에게 자유를’이라는 주제로 4차례 간증했다. 그리고 박정희 목사(OC여성목사회 이사장)가 ‘조국을 위한 기도’, 김도영 장로(시민권자협회장)가 ‘미국을 위한 기도’,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가 ‘교회들을 위한 기도’, 엄재선 장로(OC장로협의회 전회장)가 ‘OC동포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날 기도회는 이호우 목사(OC교협 직전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웨어 창립 15주년과 월드웨어USA 사무실 이전감사예배에서 이정숙 이사가 대회를 하고 있다

##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기...

### 월드웨어USA 창립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감사예배

월드웨어(대표 권태일 목사) 창립 15주년 및 월드웨어 USA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가 25일 오후 5시 아로마빌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협총무) 사회로 시작된 감사와 축하시간은 레위남성찬양단이 축하 찬양했으며 이정숙 목사(월드웨어 이사)가 대회를,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권태일 목사의 축하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된 뒤 샘신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가 ‘내가 본 월드웨어와 권태일 목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구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양경선 목사(다민족기독교회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헬렌김 목사가 기도했으며 잔강 목사(남가주세언약교회)의 성경봉독,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있었으며 광견섭 목사(예은장로교회)가 ‘축복의 강’(행17: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 예성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정숙 목사(월드웨어 이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

리에 있을 수 없다”며 “월드웨어 창립 15주년 맞이해서 여기 모인 마음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그리고 구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웨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의 ‘임마누엘라’는 생후 6개월의 아들로 선천성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 아이티 김영숙 지부장이 특수분유를 먹이며 돌고 있지만 여전히 위급한 상황”이라며 “1만 명이 있으면 아이와 아이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한 아이가 소망을 얻어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궁경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월드웨어는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민중, 인종, 종교를 초월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 월드웨어는 현재 전세계 26개국에 고아들을 위한 그룹 홈과 1대1결연, 지역개발사업, 의료보건사업, 식수위생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은 NGO단체다. <박준호 기자>



CBS America TV 개국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

## 하나님 주신 선교도구 방송 통해 복음전파 CBSAmericaTV 개국감사예배 및 축하공연

CBSAmericaTV(Ch 18.7, 사장 김광수)는 27일 오후 5시 남가주세누리교회(담임 박성근목사)에서 개국 감사예배와 축하공연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방송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뉘어 개국감사예배, 개국 기념식, 개국 축하행사로 진행됐다. 김영균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LA복음연합교회(김호용 목사) 찬양팀의 찬양과 샘신 목사(오직예수선교회) 기도, 주재임 목사(살롬기도원 원장) 성경봉독과 박성근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박 목사는 “큰 나무의 비전”(마13:31-32)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매체가 되고 큰 나무가 돼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방송이 되기 바란다. 큰 나무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하고 바른 영양소가 있어야 하므로 교회와 성도가 동역하며 지원할 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 바른 방

송역할은 복음을 선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주 목사의 불현송에 맞춰 헌물을 드린 뒤 박일영 목사(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축도로 마친 뒤 개국기념식을 가졌다. CBSAmericaTV 개국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CBS한용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적같이 이곳에 방송을 세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방송이 급변해 존립이 어려운 이 시대에 오픈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적극 후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광수 사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도구인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축사는 송정명 목사와 이상명 총장이 전했으며 영상과 지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축하의 뜻을 전했다. 3부 행사로 이어진 개국 축하행사는 최인혁,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찬양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별출연한 안재우 복화술사의 복화술 간증은 웃음과 감동, 방송국을 향한 축하메시지를 함께 안겨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24시간 공중파 방송 CBSAmericaTV는 채널18.7을 통해 한국의 CBS TV 프로그램과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자체제작 프로그램 등을 남가주 지역에 송출하고 있다. 한편 개국행사에 앞서 26일 오후 7시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최인혁 전도사, 송정미 사모, 복화술연구소 안재우 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CCM 콘서트를 가졌다. <이성자 기자>

## 축제장터, 워십콘서트, 공개강의 진행 월드미션대학교 스프링 페스티벌 성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4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스프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오렌지카운티와 LA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본교는 오렌지카운티 캠퍼스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공개강의를 진행했으며, LA 캠퍼스에서는 4월 23일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축제 장터, 워십 콘서트, 공개 강의를, 그리고 25일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워십 콘서트와 공개 강의를 열었다. 25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 워십콘서트는 박종술 목사(순무브먼트)와 찬양팀이 나섰다. 박종술 목사는 “은혜에 대한 정의는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 것”이라며 “많은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창조주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쓰난을 대신 감당하신 변함없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길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은혜로

## LA온누리교회 사랑이야기 콘서트 열어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명 목사)는 CCM듀오 사랑이야기(김현중, 김재중 선교사) 콘서트를 4월 24일 오후 7시30분에 열었다. 이날 콘서트에서 사랑이야기는 ‘그대를 향한’, ‘주님의 숲’ 등 주목받은 찬양곡을 선사했으며 ‘그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등을 함께 불렀다. 사랑이야기는 오는 2020년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기독교성결교회 소속 순회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스프링페스티벌 마지막날 찬양콘서트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동부교계 게시판

### 제 13회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제 13회 미동부 5개주(뉴욕, 뉴저지, 필라, 메릴랜드, 버지니아)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13일(월) 메릴랜드 소재 Western Regional Park(Field 4, 5)에서 열린다. 종목은 축구, 배구, 족구, 릴레이이며 뉴욕목사회는 종목별 선수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당일 오전 4시 50분 플러스 156가 H-마트 파킹장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문의: (917)992-5200 박시훈 목사, (646)771-5947 이창남 목사

### 이민자보호교회 제 3회 심포지엄

이민자보호교회 제 3회 심포지엄이 5월 9일(목)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복지교회와 정부보조수혜자”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교회가 협력한다.

▲문의: 718-279-1414

### 씨존 스마트폰 강좌

씨존(C-Zone) 스마트폰 강좌(86기)가 5월 4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열린다. 강의내용은 △구글맵으로 여행일정 짜기(실시간 우버체크, 대중교통, 동선짜기, 식당, 호텔찾기 등) △우버활용법 △페이팔 활용법 △유튜브 활용법 등.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폰 등 안드로이드 아이폰 위주로 강의한다. 준비물은 셀카봉(아마존에서 구입하거나, 당일 25달러에 구매가능),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2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163-07 Depot Rd. #B-1 Flushing, NY 11358. 한편 스마트폰 구입한지 3개월 미만의 초보반이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등의 고급반과 아이폰 반 등은 예약 후 개별 지도한다.

▲문의: (718)414-4848, 353-2537

### D3 전도중심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

D3 전도중심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가 5월 6일(월)과 7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또 7일(화)부터 12일(주일)까지 사흘간 D3 양육부흥회가 열린다. 강사는 안창천 목사. 목회자 세미나 참가비는 30달러이며 양육부흥회는 교재비가 15달러다.

▲문의: (516)387-9940

### 사역자 청빙

롱아일랜드에 있는 사랑의동산교회(강신용 목사)가 주님을 함께 섬기며 사역을 준비할 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찾는다. 목회자로 소명 받은 이종언어 구사가 가능하면 된다. 간단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면 된다. The Garden of Love Church,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이메일: aerimkang@hotmail.com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선교보고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종명 목사, 이하 기아대책) 4월 월례회가 24일 새소망 성리교회(박이스라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간증을 곁들인 선교보고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전희수 목사 기도 후 김사라 목사가 오카리나 연주를 했다.

이어진 설교에서 김혜정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지경”(대상4:10)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기아대책과의 연결을 회고하며 아구아디파 지역 아동선교센터 건립에 씨앗을 심은 기아대책 사역을 언급했다.

김 선교사는 “그 후 멜갈과 차 지역으로 아동사역이 확대됐다”며 “2017년 인디언 마을인 와이유 부족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셨다”고 말하고 “그동안 지경을 넓혀주신데 감사만 했는데, 지난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와이유족 사역의 비전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인디언 지역은 물도 깨끗하지 못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그곳에 교실 겸

예배처소와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 2동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아대책은 콜롬비아에 아동후원과 더불어 와이유족 사역도 함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설교 후 권케더린 목사 인도로 합심 기도후 이상열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이종명 목사 사 회로 한준희 목사가 개회 기도했으며 박이스라엘 목사가 사역보고 및 회계보고를 하고 이찬양 간사가 광고한 후 뉴욕방문 중에 참석한 황영진 선교사(엘살바도르)가 폐회기도 했다.

한편 기아대책의 주 사역인 아동결연은 4월에 11명이 추가돼 총 105명을 후원하고 있다.

월 30달러면 한 아동을 결연할 수 있으며 지역은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등이다.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이메일 breadngospel@gmail.com 전화:(718)354-6609(회장)

(유원정 기자)

# 장기투병 중인 목회자를 후원한다!

## 뉴욕목사회 부활절 연합찬양축제 성료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부활절 연합찬양축제가 지난 28일 저녁 5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부활절인 21일 개최하려 했으나 효신장로교회 사정상 한 주 미뤄졌다.

이번 찬양제는 장기투병 중인 목회자 후원을 위한 행사로 유태웅 목사가 준비위원장으로 섭졌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성도에 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부활”을 강조하며 “이번 찬양제가 은퇴 후 투병으로 쓸쓸한 노후를 지내고 있는 선배 목회자들을 돕게 된다”고 밝히고 “찬양팀과 참석자들이 함께 어울려 찬양하는 축제가 되기 바란다”며 개최를 선포했다.

찬양축제는 이준성 목사의 기도 후 ‘부활의 소망’ 영상 상영 후 교회연합 찬양팀의 찬양, 뉴욕교회회장 정순원 목사와 KCBN이사장 윤세웅 목사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있었다.

이어 뉴욕기독교리틀키즈와 아이, 예담어린이국악선교단, 뉴욕장로성가단 에이노스중창단, 아이소리모아 어린이합창단, 솔로4색 악기연주찬양 제시 유 교수의 연주가 있었다.

또 양승호 뉴욕교회총경회장과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장 전희수 목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 후 뉴욕기독교저널 선교합창단이 찬양했다.

장기투병중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겸여호수아 목사, 현금 기도 권금주 목사, 현금특송 이



뉴욕목사회 부활절 연합찬양축제에서 뉴욕장로성가단이 찬양하고 있다.



뉴욕목사회 부활절 연합찬양축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광선 집사, 부활의 생명(영상), 손사랑 수화찬양, 교회연합찬양팀의 파이널 축제, 축도 김영환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 2차 준비기도회

한편 이번 찬양제를 위한 2차 준비기도회가 23일 오전 새가나안교회(이병홍 목사, 최요셉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 및 기도회는 인도 박드

보라 목사,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 기도 박준열 목사,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 말씀 김상태 목사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19 성령화 대성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제 2회 청지기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제 2회 청지기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있다.

제 2회 청지기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28일 저녁 6시 뉴욕든든교회(남일현 목사)에서 열렸다. 청지기부부합창단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졸업 목회자 부부들로 구성됐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David T. Clydesdale가 편곡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으로 부활의 주님을 테마로 17개의 곡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연주회에서 단원들은 청지기 밴드(Cornet, Alto Horn, Flugelhorn, Euphonium)를 구성해 선보였다.

단장 이종태 목사는 “2017년 5월에 창단해 그해 12월 1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후 찬양과 악기연주를 연습해왔다”며 “지휘자 신동기 목사와 신주희 피아노 반주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

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이종태 목사의 인사말 후 허윤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며 이어 청지기 밴드의 합주와 2중주(이종태, 이영주), 합주가 있었다.

허윤준 목사는 시편 8편을 들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칭송한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라며 “은혜 받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 은혜 받은 단원들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출연으로 독창 백성화(소프라노), 공경민(테너), 뉴욕심포니윈드앙상블의 금관5중주가 있었다.

연주회는 남일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자”

### 뉴욕교협 '2019 성령화 대성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오는 5월 10일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2019 성령화 대성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2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오전 10시30분부터 한마음 침례교회(박마이클 목사)에서 드린 기도회는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기도 송운섭 장로,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정순원 목사, 합심 통성기도 권케더린 목사(2019 성령화 대성회)를 위해, 강사 윤보환 목사, 영광교회), 하정민 목사(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뉴욕교계를 위해),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허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견고케 하시는 신뢰”(요21: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들을 앞서 가시며 믿음을 견고케 하셨다. 그 믿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무처리는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정순원 목사가 이번 성회와 계속 이어질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차세대를 위한 집회 등에 대해 소개했다.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밖에 없다”고 성령화 대성회를 광고하고 “모든 집회의 관건은 동원이다.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고 개개인이 기도와 인원동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19 성령화 대성회”는 5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프라미스코교회(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윤보환 목사(기갑 감독, 인천 영광교회)로 13일(월)에는 목회자 세미나도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 66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뉴욕장로연합회 제 66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 제 66차 조찬기도회가 4월 25일 오전 8시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우화선 장로 사회로 반주 손운아 권사, 기도 주윤덕 장로, 설교 박성원 목사(풍성한 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만민에게 복음을”(막16:15-16)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나눔의 집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음을 간증했다.

합심기도는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한 후 정덕상 장로가 1)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2)풍성한교회와 나눔의 집을 위하여 3)다민족선교대회와 회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제목으로 기도했다.

김연창 장로가 헌금기도했

며, 장로중창단이 헌금특송(“날위하여 십자가에”)을 했다.

이어 회장 김영호 장로의 인사 후 송운섭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준비 현황보고를 했으며 신승룡 장로의 광고 후 박성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곧이어 임형빈 장로의 식사 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장로연합회는 당일 뉴욕교협이 주최한 성령화 대성회 제 2차 준비기도회에 참석했다.

장로연합회는 춘계 친교야유회를 교협 이사회와 함께 5월 25일(토) 오전 9시 Sunken Meadows Park로 간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 중국정부, “파키스탄 피살 중국인 배후는 인터콥” 인터콥 “우린 중국인 2명 파송한 일이 없다” 선 그어

중국 정부가 2017년 5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2명의 배후가 인터콥 선교회(본부장 최바울)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9일 중국 인민일보는 “H국 기독교 조직인 Inter CP가 과격 무장괴한에 납치 살해된 국내 신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Inter CP는 인터콥이 사용하는 영문명이다.

중국 국가안보국의 발표를 전한 중국 인민일보는 안보에 해를 끼친 3가지 요인 중 하나

로 인터콥을 언급했다. 보도에는 “인터콥이 1983년 설립된 선교기관으로 ‘복음의 서진 운동’을 기치로 2000년부터 중국 닝샤(寧夏), 신장(新疆), 칭하이(青海), 쓰촨(四川) 등에 선교사를 파송해 왔다”며 인터콥의 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중국 젊은이들을 선동해 선교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대중이 해악을 인정하고 반중국 세력과 선을 긋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

동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터콥은 26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파키스탄 중국인 순교자 두 명은 인터콥 파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도 지난 23일 회원단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알렸다. KWMA는 “중국 국가안보국이 2017년 파키스탄 사태의 원인이 인터콥 선교회라고 적시하며 외래 종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했다.

KWMA는 지난해 2월부터 2년간 인터콥의 회원권 자격을 정지하고 사역지도를 하고 있다.

##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 6월1일 열린다 서울 대한문 앞...기독교 색채 빼고 문화축제 형식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문화축제가 오는 6월 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다. 오후 1시부터 개최되는 행사는 기독교 색채를 빼고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반대 행사 개최와 차별금지법 저지 이윅을 설명했다.

국민대회준비위 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성애 문화혁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은 동성애를 문화로 포장하며 혐오와 차별의 이름으로 동성애 비판반대를 금지하고 찬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도 서구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 독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동성애 혁명 운동이 법률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옹호·지지를 받으며 매년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퀴어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퀴어행사가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서울 시민의 쉼터인 서울광장에서 선정적이고 음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

으로 위장한 행사는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비호와 서울시의 지원 아래 대담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퀴어행사의 목적이 선정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은 서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 독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금지하고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퀴어행사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양심 건강 보건 교육 사상 학문 종교 등의 이유로 동성애를 비판하면 혐오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금지된다”면서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등을 초래하는데도 심각한 유해성과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에 대해 알 권리 자체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청소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도준칙 제정과 퀴어행사 지지 등으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퀴어행사에 수많은 젊은이를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퀴어행사 주최 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정확히 알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진 독재법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음란하고 유해한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고 동성애의 폐해와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고 말했다.

국민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원평 부산대 교수도 “서구의 잘못된 음란문화는 한국사회의 도덕과 윤리, 가정질서를 파괴하며 수많은 사람을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은 동성애가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 양 거짓말을 한다”면서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성애를 처벌하며 3분의 1은 중립을 지키고 있어 그들의 거짓말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동성애자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깨우고 윤리와 도덕, 가정의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면서 “오는 6월 1일은 윤리 도덕을 지닌 경건한 사람들이 음란문화를 이겨내는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간 전국을 돌며 특별기도회를 개최한다.

국민대회는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오후 2시 30분부터 노래와 춤, 연주, 퍼포먼스 등이 결합한 ‘러브 이즈 플라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4시엔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깊은 유감...”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 지난 24일 입장문 발표

서울신학대와 백석대, 협성대 신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낙태 수술 전 상담 및 교육’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신학대 신학과 학생회는 지난 24일 이들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 이름으로 작성된 ‘낙태죄 폐지와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신학생들의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는 서울신학대와 백석대, 협성대 3개 대학 신학생의 모임이다. 이번 입장문 발표를 계기로 조직됐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태아와 산모 그리고

사회를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낙태죄를 폐지시킨 헌재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헌법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판결을 반대하기보다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게 신앙인의 책무”라며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낙태 수술 전 상담 및 후유증 교육 의무화’ ‘초·중·고교 성교육 강화’ ‘낙태 허용 임신 주기 10주 미만 설정’ 등 낙태를 억제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이들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산모의 문제에 공감하고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낙태를 반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책

임”이라며 “입장문으로 낙태모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창대 서울신학대 신학과 학생회장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입장문을 준비하다 타학교 신학생들과 연락이 돼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헌재 판결에 무조건적 반대보다 추후 입법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입장과 요구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장문에 4가지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안에서 특별히 낙태 허용 임신 주기를 10주 미만으로 언급한 건 헌재가 제여 태아와 산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네트워크는 향후 낙태법과 관련해 추가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다른 사회 이슈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회복사명 담당할 것”

북한기독교인회 회원들, 제1회 여성수련회서 ‘사명선언문’ 발표

북한군(軍)출신 크리스천 모임인 북한기독교인회(회장 심주일 목사)는 26일 낮 경기도 가평 청평재를 녹수교회에서 ‘제1회 여성수련회’를 개막했다.

참석자 일동은 이날 사명선언문에서 “북한 군인들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이 북한 노동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평양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사역을 위해 조직이 더욱 단결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명을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심주일 북한기독교인회장의 인도로 북한 군인의 복음화와 탈북민 복음화, 병으로 고통받는 탈북민을 위해 합심기도를 드렸다.

## “스리랑카 교회 위해 기도의 힘 모으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관심 호소, 외교부도 ‘여행자제’ 발령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이사장 김성태)가 지난 21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시온교회 소식을 전하며 관심을 호소했다. 선교회는 스리랑카 교회를 돕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선교회는 “피해 교회 중 유일한 개신교회인 시온교회에선 유독 교회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온교회 교인인 리요니(가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선교회는 테러 발생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날 오전 낮선 남성이 마을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을 수소문했다. 하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소리가 더 커졌다.

서울 관악구 주영광교회 설립국 목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엡 5:15-21)라는 제목으로 설교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간증한 뒤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무엇보다 회개의 영이 함께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증거하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27일 낮까지 열린 수련회는 한국기독교탈북민적자지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북한기독교인회 고문단과 국국중앙교회, 한백향공주이 협력 및 후원하고 있다.

손봉기 군종목사와 모퉁이 돌선교회 김나훤 간사, 한창주 DMZ통일기도의집 목사, 동영진 북한기독교인회 지도고문,

박용욱 전 국방부 차관, 윤여일 전 육군소장, 장봉환 장로, 김강오 북부중앙교회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최영걸 총의교회 목사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막 5:1~20)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할 예정이다.

탈북민들은 지난해 6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북한기독교인회’ 창립했다. 북한의 육해공군 100만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여성수련회 외에 북한 전역으로 송출하는 방송채널 확보, 탈북민 복음화와 북한의 지하교회 지원사업 등 발일 방침이다.

심 회장은 “통일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북한 군인에게,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박모씨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유지에 이용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러지고 다시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어 “교회의 재건과 공동체 회복, 기독교 탄압이 중단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스리랑카 경찰은 연쇄 테러 희생자들이 359명이며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다고 발표하며 3월 15일 모슬렘 50명이 희생된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보복이 이유라고 밝혔다. 경찰은 테러 용의자 58명을 체포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 23일 스리랑카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한단계 높였다. 여행자제는 체류자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 유의해야 하고 여행예정자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단계다.

## 대법원, 오정현 목사 측 재상고 기각 ‘위임결의 무효’ 확정 판결

법원이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결의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안철상 재판장)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노회장 광택천 목사)와 오 목사가 상고한 위임결의무효 확인소송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2016년 2월과 2017년 5월 진행된 1,2심에서 ‘성직자 선발기준의 종교적 자율성’을 근거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오 목사의 위임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국민이 전환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두고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 이 일반편이었는지 편목편 임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 돼 있지 않은 점, 편목편임을 주장하는 오 목사가 임과과정에서 목사 안수증

##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헌정식

이화동에 기독교문화와 성령운동의 센터 건립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는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헌정예배를 건립위원과 교계인사 100여명이 참가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성령센터에서 가졌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이자 건립위원장인 이수형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찬양 소프라노 오미선,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취지문을 성훈기 목사, 김종양 목사, 남준희 목사, 손광호 목사, 윤

##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헌정식

이화동에 기독교문화와 성령운동의 센터 건립

민자 목사, 한재홍 목사가 함께 낭독했다.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위원회 명예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라”(행1:1-4)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설교 후 한국기독교성령센터를 위해 강연식 목사가 나와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범열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다.

이어 헌정위원장 안준배 목사가 헌정사를 하고 소강석 목사, 이수형 목사, 안준배 목사, 성훈기 목사, 정인찬 목사, 권태진 목사, 장항희 목사, 김용

## “자살 STOP” 자살 유가족 위로하는 한국교회 한국생명희생전화 · 생명사랑목회포럼 공동 주최

한국교회가 자살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생명희생전화와 생명사랑목회포럼(회장 남서호 목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생명사랑목회포럼’을 갖고 유가족의 상처를 위로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

만 명당 24.3명이 자살하는 나라다. OECD에서 2번째로 자살률이 높다. 자살은 당사자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매년 자살 유가족이 8만여명이 발생한다. 그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 역시 우울증과 자살위험에 또다시 노출되는 악

순환을 거친다.

이광자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교회와 자살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유가족에 대한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자살 직후 6주가 유가족을 돌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교회가 이 과정을 돕고 유가족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봉환 대신대 부총장은 자살 유가족의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



# 교토소 선교칼럼 (58)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육, TPPM대표



## 열린 문: 조폭대안단체 설립자 (Open Door: Youth, Gang Alternatives)

리안 켈리 목사님은 58세이다. 1987년에 '열린 문'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덴버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조직에 대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기관의 사명은 범죄 조직원 모집을 억제하고 거리의 폭력조직을 줄이려고 학교 내외 방과후 프로그램들, 아이들 양육수업들, 십대들의 고용과 직원훈련, 피해자 가족 지원, 지역사회 계몽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과 접촉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6-14세인 약 200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기절제와 자기개발을 특히 강조하고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학업도 도와준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인 선택들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소자 인원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켈리 목사님의 사역은 중요하다.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안전과 보호, 양육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그 결핍을 거리의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고

범죄로 연결된다.

그래서 켈리 목사님은 그런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일반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것의 위험성과 중독, 전과자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 교육한다. 켈리 목사님의 사무실에는 폭력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한 젊은이들의 명단이 비치되어 있다. 2011년 6월 18일 현재 그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996명이 되었다. 어떤 때에는 한 주에 두세 명의 젊은이들을 땅에 묻었다. 이런 비극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족들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역을 이끌어갔다.

2010년 켈리 목사님은 지역사회와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노력을 인정받아 콜로라도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그의 노력으로 어린 나이에 폭력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부터 범죄조직과 관련해서 범죄행위에 연루된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 나는 앞으로도 그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다.

2007년 성령님께서 나에게 켈리 목사님이 간증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증책을 쓰라고 권했는데 다른 일로 분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 이 책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켈리 목사님의 간증을 받으라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고 이 간증이 나오게 되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잃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성장되고 삶에 대한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 “나의 이야기”-리안 켈리 목사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내 어머니는 사모이자 선교사였다. 장남인 내게 아버지는 근면성실을 강조하셨고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심어주셨다.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기동과 같은 분이셨지만 목회의 어려움을 바로 옆에서 경험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 있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덴버에 있는 이스트 고등학교에서 농구와 미식축구를 했고 콜로라도 주립대학으로 진학했는데 그 때부터 나는 새로운 세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다. 술과 마약, 여자에 대한 탐욕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야구도 하면서 마약과 더불어 내 인생이 흘러갔다. 어느 날 도심에 있는 내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생각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알고 싶다.”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또 여전히 나는 마약매매도 하고 마약을 사용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내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마약을 사고 돈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위협을 하다가 실수로 총을 쏘았는데 그의 앞마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는 순간 공포가 엄습했다. 내가 살인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나는 체포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끝내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터질 듯 한 느낌으로 형무소에 가게 되었다. ‘대학교육까지 받은 농구선수였던 내가 범죄자가 되다니?’ 내 스스로가 믿어

지지 않았다. 테리토리얼 형무소에 도착한 후 농구선수 전력과 마약판매자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내 방에서 마약을 팔았다.

면회 온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다. 순간 영혼이 찢리는 듯 한 고통이 엄습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한단 말이 나오나?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변하고 싶은데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 드려라.”

마약을 파는 내 자신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의문과 혼란이 밀려왔다. 그러던 중 교도소에 있던 한 남자가 강간과 살인을 당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계속 기도하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의식에서 벗어나 활기분해졌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은 내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마약판매를 중단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단 네 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는 사십 명으로 늘어났고 시간이 흐르며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재소자들이 많아졌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나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 통신 성경공부 과정을 시작했다. “나는 누구이며 내게 무슨 힘이 있는가?” 문득 내 자신에게 묻게 된 어느 토요일 통째로 불려갔고 집을 써라는 말을 들었다. “이제 여기서 떠나십시오.” 기대하지 못했던 가석방 후 집에 돌아와서 숨겨두었던 코카인 한 상자를 땅에 뿌리며 선포했다. “마귀야, 이제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너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을 맞이한 후 전과자로서 현실적인 상황과 직면해야 했다. 아무리 성실하게 면전에 임해도 전과기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쉬지 않고 도전했다. 그리고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면접관에 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판단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가치와 능력을 입증할 만한 기회를 주십시오. 2주 동안 무료로 일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나의 말에 동의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시간은 여덟 시였지만 매일 아침 일곱 시 반에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일했다. “켈리씨, 잠깐 봅시다.” 일주일 후 나는 호출을 받고 간 자리에서 채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뒤 한 달도 안 되어서 나는 그들의 신용을 얻어서 감독이 되었다.

1984년 범죄조직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콜로라도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때 크립스(범죄조직이름)라는 조폭이 덴버시의 동쪽으로 왔고 블릿스(범죄조직이름)라는 조폭은 시내의 동쪽에 있는 파크힐로 왔다. 그 당시 나는 지역 체육관에서 지도자로 일하면서 많은 범죄조직원을 포함한 동쪽 지역에 젊은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시로 가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덴버시로 돌아왔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로 시장, 시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길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야기하고 싶지 않더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사태는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겁주기 위해 공포탄을 쏘던 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을 겨냥했고 아이들이 죽어갔다. 그제서야 관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를 찾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yonghui.mcdonald@gmail.com



# 드라마 구약 (8)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회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었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한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이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예언자들을 보내신 목적과 그 분들이 전하셨던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시기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됩니다. 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남방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등의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언자들의 발생된 시기가 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예언서들의 내용이 어떻게 대략 그려지시죠? 맞습니다. 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망한다’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십니다.

선지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써야 할 성경적 관점은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하시나 돌이키면 회복시켜주시겠

다는 메시지가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안경을 끼고, 예언서를 보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를 살펴보고, 남방 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을 무렵,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즈음에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3남매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둘째 딸의 이름은 로투하마,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그 세 자녀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첫째 아들의 이름인 이스르엘의 뜻은

‘흠으셨다’라는 뜻이고, 둘째 딸의 이름인 로투하마는 ‘공허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며, 셋째 아들의 이름인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13:4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음란과 패역 때문에 심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벤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공허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9장입니다. 암9: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 역시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에서 활동하신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방 유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망했습니다. 남방 유다가 망하기 약 120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의 메시지로서 돌이키면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같은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활동을 하십니다. 미가서도 역시나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상을 고발하시며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1:3,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옴이 강림하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나 4장부터 7장까지는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2부터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시고, 5:2 상반절은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미가서의 결론은 7:18-20입니다. 특별히 20절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결국 미가서의 내용도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읽으면 예언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ukim@gmail.com

##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관된 메시지

대표적 선지자: 북이스라엘-호세아/아모스, 남유다-이사야/미가

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해주시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참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뿔나무를 재배하며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방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5: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부터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같은 분들입니다.

남방 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단연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도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입니다. 죄악상을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하나님의 표징과 어투가 확연히 달라 집니다.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십니다. 그래서



### 중국가정교회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 (3)

노봉린 박사

AGST Pacific하와이신학대학 학장, 전 OMF선교사(1970-2000)



2018년 2월 정부는 북경에서 제일 큰 가정교회인 시온교회(1,500명 교인) 김명일 목사(조선족)에게 교회건물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하므로 경찰관 60명이 교회에 침입하여 교회의 모든 가구를 교회 밖으로 내던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므로 갑자기 주일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김명일 목사는 교인들을 북경의 한 공원에 모여 주일 “행보예배”(Walking Worship)를 드린다고 하며, 각 교인에게 보청기를 가지고 와서 귀에 끼고 행보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다.

2018년 5월 2일 청도에 있는 가

사회질서와 시민을 다스리는 정부를 존경한다. 우리가 믿고 모든 교인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부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정부가 성경이 주어진 세속적 권리의 제한된 벽을 넘지 아니하고 신앙과 영혼과 연결된 믿음을 방해하지 않고 위반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은 이 권리를 존경하는 책임을 가져야 하며 교인들을 열렬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중국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 III. 미래의 중국가정교회

현재의 극심한 중국정부의 가정교회탄압의 중요한 이슈는 “교회의

를 결심한 보수적인 가정교회이다.

#### 2. 삼자교회와의 타협성을 열어 놓은 가정교회

많은 젊은 도시가정교회 지도자와 평신도는 과거의 종교핍박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삼자교회에 대한 자세는 적대성이 적거나 무관심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가정교회는 삼자교회와의 상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삼자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은 가정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중국 공산정권은 세계에 종교자유를 헌법에 보장하는 국가로 알리기 위하여 삼자교회에 종교자유를 허용하였고 이때 북경의 한

### 정부의 가정교회탄압 주요 이슈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에 있어 신앙 타협 않는 교회와 삼자교회와 타협성 열어둔 두 형태로 나타나

정교회인 새벽비언약교회(200명 교인)도 경찰관이 진입하여 교회를 폐쇄하고 왕이 목사와 사모를 정부 종교정책에 반대하는 도전을 주었다고 하여 5년-15년형을 내렸고 200명 교인들을 체포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가정교회 핍박의 스토리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상해도시 밑에 있는 짜짱성은 기독교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곳의 원주시를 비롯하여 2015년 8월부터 2017년까지 교회 지붕 위에 세워진 2,000개의 십자가를 “정부건축법위반”이란 명목으로 떼어 내렸을 때 교인들이 십자가를 꺼안고 울기도 하였다. 시진핑 정권의 현재 종교핍박은 모택동 주석의 중국문화혁명 때 일어났던 대규모 기독교 핍박 후에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탄압을 반대하는 가정교회 목회자 400명이 정부에 “목회자들의 연합성명서”(A Joint Statement by Pastors)를 제출하였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국정부의 권리에 중국 기독교인은 순종하며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데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정부”가 종교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가정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중국정부와의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교회의 정부에 대한 자세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 1. 보수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복음주의 가정교회

기독교의 보수신앙을 유지하는 가정교회는 정부종교 탄압에 불복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새로운 삼자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김천명 목사, 김명일 목사, 왕이 목사 외 400명 목회자가 “목회자들의 연합성명서”를 정부에 제출한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다. 왕명도 목사, Watchman Nee 목사 같이 정부의 종교탄압과 삼자교회를 반대하며 핍박 때문에 그들의 복음주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삼자교회는 정부로부터 새로운 교회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많은 젊은 가정교회 신자들은 전에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삼자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로는 삼자교회가 어려운 가정교회를 법적으로 보호했다는 것이다. 그외 삼자교회를 통하여 정부의 허락을 받아 수천만 권의 중국성경책을 아마티 출판사가 출판하였고 또한 수 백권의 기독교 서적도 출판하여 대도시에 250개의 기독교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 일부는 시진핑 주석이 현재 가정교회의 심한 핍박을 가한 후 앞으로 종교자유를 완화하면서 수많은 가정교회를 정부에 등록시키는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국정부를 어떻게 주관하실지 또한 가정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rohonolulu@gmail.com



### 10주년 맞는 프라미스교회 ‘4/14 윈도우사역’ 2019년 스페인, 파나마, 방콕에서 펼쳐진다

뉴욕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가 펼쳐고 있는 어린이 선교사역 ‘4/14 윈도우’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4/14 윈도우 사역은 2009년 9월 김남수 원로목사와 루이스 부시 박사(10/40 윈도우운동)의 공동주창으로 전 세계 14-14세의 어린이 18.5억명과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역은 지난 10년간 쉽 없이 5대양 6대주에서 진행되었으며, 올해도 대형선교 프로젝트를 실은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출항시킨다.

먼저 뮤지컬 ‘히즈라이프’(His Life)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유럽의 관문인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8회 공연했으며,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8회 공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브로드웨이급 뮤지컬로 구성, 약 2시간의 공연으로 복음제시와 결신의 시간을 갖는다. 히즈라이프는 이미 2005년부터 전세계 20여개국, 30여만명이 관람되어 많은 결신을 맺었다. 특히 이번 스페인 공연은 복음의 열기가 식은 유럽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는 의미로 진행된다.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학의 본거지인 유럽의 교회가 다시 꽃을 피우고 드넓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역에 프라미스교회는 약 50여명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파송한다.

매년 큰 열매를 맺는 축구선교는 2011년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2013년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 2014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2015년 한국의 안양, 고양, 부천에서, 2018 멕시코에서 총 30개 구장에서 약 100만명의 어린이

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구선교를 통해 직접복음을 전했으며, TV 중계로 약 1억2천만명이 간접복음을 접했다.

올해는 7월에 중미 ‘운하의 나라’ 파나마의 4개 도시, 즉 데이빗(10일), 산티아고(14일), 페노노메(17일), 파나마시티(21일)에서 각각 개최한다. 축구선교는 한국의 할렐루야 축구단(감독 이영무 목사)이 매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파나마는 인구 40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한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의 함성이 각각 100만 명씩, 전 파나마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나마 축구선교는 약 400여명의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이 각각 한 두 개 혹은 전 경기에 직접 참여한 다. 프라미스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단기전도팀 약 100여명이 함께 가서 파나마를 섬기며 부모들의 선교를 배우게 된다. 또한 파나마의 2,000여명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직접 섬기며 선교의 꿈나무로 활짝 자라 돌아올 예정이다.

프라미스교회는 외부사역을 위한 내적 하나됨을 위해 영유아부로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영어예배 및 장년예배가 한 본문으로 예배하고 이를 가정예배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영적 일치를 이루고 이 영성으로 기도해 세계사역을 감당한다.

또한 ‘4/14윈도우’ 사역 10주년을 맞아 2020년 5월에 프라미스교회서 약 500여명의 세계 사역자들이 모여 ‘4/14 윈도우 뉴욕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

(기사제공: 프라미스교회)

###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영어로 보는 성경 (1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2 Chronicles 29:10,11

10) Now I intend to make a covenant with the Lord, the God of Israel, so that his fierce anger will turn away from us, 11) My sons, do not be negligent now, for the Lord has chosen you to stand before him and serve him, to minister before him and to burn incense. (NIV 2011)

### WORD & IDIOM

\* intend: 의도하다, 작정하다 \* covenant: 언약 \* fierce: 난폭한, 맹렬한 \* so that A will + V ~: A가 ~를 하도록 \* negligent: 게으른, 태만한 \* minister: 보살피다, 섬기다 \* burn: 태우다 \* incense: 향

### GRAMMAR

#### 10) Now I intend to make a covenant with the Lord, the God of Israel.

지금 나는 작정하다 언약을 세울 것(을) 주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so that his fierce anger will turn away from us. 하도록 그의 맹렬한 분노(가) 떠나갈 것이다(떠나가게) 우리에게서 =>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을 작정한다.

\* so that A will ~이하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실제로는 앞 문장부터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so that을 <그래서, 그리하여> 정도의 부연사를 살려 해석을 하면 된다. =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맹렬한 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작정이다.

\* I intend to make(S + V + to V)에서 to V는 intend의 목적어(명사)가 되는 동시에 그 자체가 목적어를 갖는 동사의 역할도 한다. a covenant가 바로 그 목적어이다. to make a covenant: 언약을 만드는 것. 언약을 세우는 것. 언약을 체결하는 것 등으로 해석한다.

\* the God of Israel is the Lord와 so that ~ 문장 사이에 들어간 삽입구로서 the Lord를 수식한다.

#### 11) My sons, do not be negligent now, for the Lord has chosen you

나의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to stand before him and serve him, to minister before him and to burn incense. 그 앞에 서서 그를 시중들도록 그 앞에서 섬기도록 향을 피우도록 => 나의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앞에 서서 시중들고, 그의 앞에서 섬기며 향을 피우도록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 for the Lord has chosen you는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to stand ~ and serve ~, to minister ~, to burn ~ 등은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to +V>로서 부사적 기능을 갖는다.

\* To+V는 그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 놓인 위치에 따라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한다. 또한 동사의 일종이므로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을 가질 수 있다.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He is not a man to tell a lie. 명사적용법 =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용사적 용법 = 그는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다. We eat to live. 부사적용법 =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 the Lord has chosen you 는 have(has) + pp의 현재완료시제이다. 이는 주께서 선택하신 것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이며 그 선택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 STUDY & THOUGH

■ 언약은 관계성 확립의 한 방법으로 쌍방 간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열국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으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그 언약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금 언약을 세워야 했다. 이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안이하고 게으른 방종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할 것을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 What do you identify as the source of your sufferings?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이스라엘이 다우시의 집을 배반하여(왕상12:16-19)

르호보암왕의 미련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남북이 갈리게 되고 나라는 급속도로 긴장된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왕은 북이스라엘에 더 일을 시키기 위해 감 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감 독이 돌

에 맞아 죽었고 르호보암왕도 급히 피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의 왕은 백성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 화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왕상12:20-24)

르호보암왕 옆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야 했는데 지금 유다가 온 족속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왕입니다. 이미 르호보암은 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백성들이 모두 순종해 싸움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 수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왕상12:25-27)

본문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혼합종교정책을 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이끌면 영원한 복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작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해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철저히 지 못한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오고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 금송아지를 벨엘과 단에 세워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 목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왕상12:28-30)

본문을 보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신이라 하면서 벨엘과 단에 두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8절에 "이에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여러 사람들과 계획을 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사람들과 모여서 결국은 악한 계획을 짜낸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로보암에게 한 사람이라도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었다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을 말리고 성전으로 나가 예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 금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왕상12: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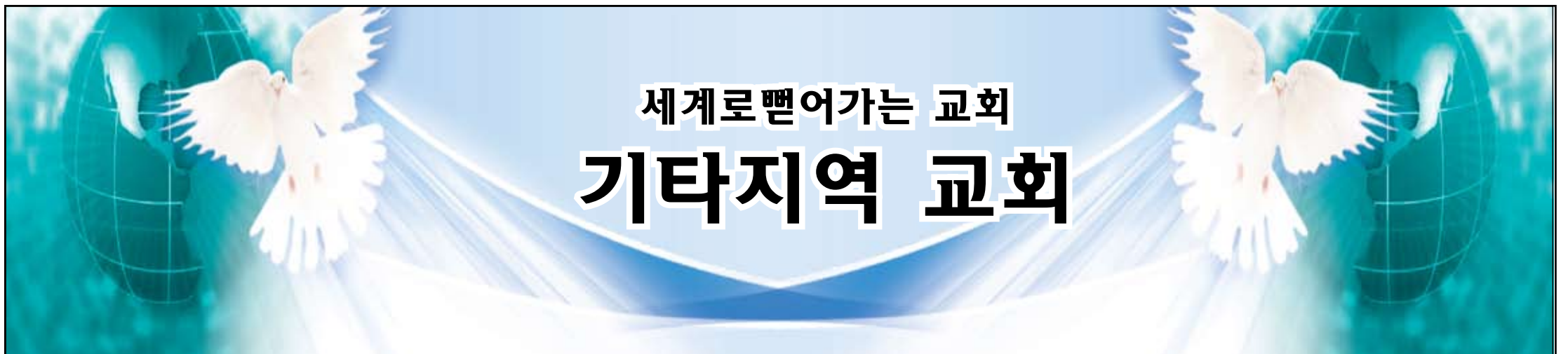
여로보암이 또 한 가지 큰 죄를 진 것은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레위인들 중에서만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일하며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역대하11:13-17을 보면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기 위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레위인들이 대거 남유다로 남하했습니다(출28장 참조). 사람이 잘나서 제사장이 되

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아무나 교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세 곳에서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며 교회와 가정에서도 평생 주님께 충성할 종이 되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교역자가 되면 우상숭배를 막지 못합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 토 저가 자기 마음대로(왕상12:33-13:2)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그 집에 견고하고 그 위가 영원히 든든히 있을 텐데 처음부터 혼합정책을 씀으로써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이고 긴장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벨엘로 가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한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벨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위헌년회: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1-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사장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 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s.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인/터/뷰

이국진 목사(전주 예수비전교회 담임)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는 강단 회복 있어야”

지난 3월 26일 뉴욕교협(회장 정승원 목사)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공동주최한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뉴욕을 방문한 이국진 목사를 만나 세미나 주제였던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대한 소개와 한국교회 현황 등 이야기를 나눴다. 이국진 목사는 현재 전주 예수비전교회 담임이며 아가페 성경책 편찬책임자이기도 하다.

-목사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전주에 있는 예수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국진 목사입니다. 저는 충신을 졸업하고 육군 군목으로 사역한 후 고든콘웰신학교 Th.M 과정과 웨스트민스터신학교 Ph.D. 과정을 공부하고 최종학위는 노스웨스트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교협에서 주관하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주최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다년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비유풀이는 요즘 이단 집단인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점에 이 세미나가 아주 유익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잡아먹거나 또는 우리를 착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목자와는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



생명력 잃고 제도화 돼버린 한국교회 우려  
예수님의 비유 해석 담은 책 출간 준비 중

네, 이번 세미나가 아주 유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신천지는 비유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되는 데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비유를 해석할 때 아무런 기준 없이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게 만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비유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로 사용된 것(A)과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B)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대조점도 있는데, 대조점도 마치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목자라는 말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개념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2시간짜리 세미나에서는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는 보다 더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니다.

-아쉽네요. 혹시 기회가 있다면 목사님 강의를 다시 들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의 원고를 받아 연재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는 책이 출간되면 그 책을 소개할 겸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와 미주 여러 지역에서 세미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책은 지금까지 약 600여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집필했고, 아마 탈고해 출간하면 약 8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비유를 다룬 한국어로 된 책 중에서 가장 방대한 저작이 될 것이라 생각하구요. 게다가 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유를 접근해서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 제목은 “땅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늘 이야기”라

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회가 되는데도 비유에 대한 강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제도화돼버렸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종교란 단지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생생한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식일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지, 제사를 문자적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잘 드리는지, 정결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지 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때 그런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를 들어, 교회 리더십 그룹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에 있는 데요. 그냥 그 표현만 보면 거룩한 목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교회가 성장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왜 교회를 떠나는지, 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저 자신들이 정한 전통을 고수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무너졌던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수단처럼 이용하려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데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등 강단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된 복음의 선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중)

오래전 출판사와 잡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다. 신간 퍼내라, 매달 잡지 만들라, 원고수집, 원고료 지불, 출판비, 광고 칸 채우기..... 하루하루 시달리다보면 헤어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빠져 불면증으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필자는 그에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무릎을 꿇으라”고 조언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도말을 재경비했다고 한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대신 사무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1년 후 사육을 마련하고 운영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사뿐이겠는가? 하나님의 목회라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한숨짓고 양탈 부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두리번거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목회 마침표를 찍게 된 내 꼴이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목사님 바쁘십니다.” 왜 바쁘는가? 무엇 때문에 바쁘는가? 나만 그 답을 알고 있다.

열린 목회

필자는 열린예배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한다. 더욱이 모든 약기를 총동원해 팝 수준의 가스펠을 열창하고 목사도 청바지에 반팔 티를 입고 그러면서 이것이 열린예배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싫다. 지금껏 대통령 면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을 예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장이나 노래가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며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부하고 타성에 빠진 예배는 회복해야 한다. 예배자의 참여 없이 인도자의 주도일변도로 진행되는 예배라면 진정성 있는 예배도 아니고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 없다.

목회의 경우는 어떤가? 중세교회의 병폐는 성경도, 예전도 사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폐쇄회로처럼 교인은 관망자일 뿐 그 어떤 행위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병폐가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교권이 성곽을 쌓기 시작했고,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목회는 목회자의 전문분야다. 전문 사역을 위임 받아 교회를 섬기고 교인을 이끄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신학 과정을 이수하고 공기구인 노회나 총회의 인증을 받아 목사가 된다. 그렇다고 목회가 목회자만의 점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사회변동 속도가 빠르고 다양화로 치닫는 현대 목회를 목사 혼자 감당하는 것은 버겁고 힘들다. 목회는 교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날개를 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과 지원이 성립될 때 바람직한 목회현장을 일구게 된다. 그런데 ‘목회는 내 거야. 간섭하지 마, 건드리지 마, 내가 뭘 알아?’라며 독단을 일삼았던 목회라면 빨리 되돌리는 게 좋다.

iamcspark@hanmail.net



제27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마주자치연회

The 27th Annual Conference of The KMCA

주 안에 서라! (빌 4:1)

- 하나 됨. 개혁. 도약! -

감독 은희곤



- 일시 : 2019년 5월 7일(화) 오전 10시, 5월 8일(수) 오전 9시
- 장소 : 나성동산교회 (LA Dong San Church)  
2525 James M. Wood BL., LA., CA 90006